

## 한국 신종교 운동으로서 대순진리회\*

데이비드 김(David W. Kim)  
호주국립대학교 · 교수

- |                    |                        |
|--------------------|------------------------|
| I. 서론              | IV. 예언, 천지공사, 인준시대의 성취 |
| II. 근대 초 한국의 대순진리회 | V. 결론                  |
| III. 대순진리회와 그 신학체계 |                        |

### I. 서론

근대에 들어 서양세력은 식민지를 찾아 다른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국가들 역시 식민화와 종교개혁의 물결 아래 있었다. 동아시아국가들 중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근대초기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처음으로 조선에 나타난 시대였다. 이 시대 주요 신종교 중에서, 증산교계는 증산 강일순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로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창설되었다. 교주의 레거씨(legacy)와 전통은 증산계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종단 대순진리회에

---

\* 대순진리회는 Daesoonjinrihoe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the Daesun Jinriho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Daesunjinrihui, Daesun Chilihoe, Daesunchillihoe, Daesoon Jinrihoe, Taesunchillihoe 또는 Daesŏn Chillahoe 등 여러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리나 종단 등을 나타낼 때 Daesoonjinrihoe, Daesoonjinri, Daesoon, Daesoon Truth, or Fellowship of Daesoon 등으로 표기될 것이다.

의해 전승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전국에 5개의 도장,<sup>1)</sup> 200여 개의 회관 및 2000여 개의 포덕소를 가진 종단이다. 상제와 천지의 신명들을 모시고 있는 영대는 신성한 장소로서 다양한 기능의 시설<sup>2)</sup>과 아울러 도장에 위치해 있다. 회관은 지역에서 기도, 수련 및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 등 신도들의 종교 활동을 도모하는 지역거점이라 할 수 있다. 포덕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인 포덕소는 신도들이 기도하고 지역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이다.<sup>3)</sup> 일본의 신종교 창가학회(創價學會, Soka Gakkai)가 빈곤, 질병, 사회문제<sup>4)</sup> 등을 타파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순진리회 역시 자발적인 구호 및 자선활동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이다.<sup>5)</sup> 이들은 음식물, 물, 기기류, 위락(慰樂) 제공 및 환경운동을 통해 국내외 천재지변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sup>6)</sup> 종단의 병원과 요양시설들은 공중보건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 있다.<sup>7)</sup> 대순장학재단은 대진대학교 및 산하 6개 고등학교를 통해 젊은 세대의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sup>8)</sup>

- 
- 1) 대순진리회 도장은 여주, 중국동, 토성, 포천 및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다.
  - 2) 매해 다양한 제례가 열린다.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종교연구』 73 (2013), pp.145-175 참고.
  - 3)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Daesoonjinrihoe: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Yeosu: Daesoonjinrihoe Press, 2010), pp.44-49.
  - 4) Levi McLaughlin, "Did Aum Change Everything? What Soka Gakkai Before, During, and After the Aum Shinrikyo Affair Tells Us About the Persistent 'Otherness' of New Religions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9:1, (2012), pp.56-58.
  - 5) 1976년에서 2009년 사이 총 기부금의 70% (약 5억 3천만 달러)가 각종 사회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앞의 책, pp.36-41.; 한국종교연구회, 『한국 신종교 조사연구 보고서』 (1996), pp.93-137.; 이경원·최경익,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노인요양시설 유닛케어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5 (2011), pp.245-248.
  - 6) 대순진리회의 구제와 자선에 기반한 활동은 화재예방, 교통안전, 거리청소, 범죄예방, 농경, 미아찾기 및 노령자 돕기 등이 있다. 구득환,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 『한국종교교육학회』 9 (1999), pp.140-148.
  - 7) 종단은 이러한 공로로 지자체로부터 상을 받았다.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앞의 책, p.39.
  - 8) 하계 대진고등학교, 중계 대진여자고등학교, 분당 대진고등학교, 일산 대진고등학교, 수서 대진전자공예고등학교, 장학사업. 김순자,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한국종교교육학회』 4 (1997), pp.209-211.; 구득환, 앞의 글, pp.140-148.

## II. 근대 한국의 대순진리회

그러면 대순진리회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이 신종교의 창시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순의 의미는 무엇일까? 강증산이 19세기 말 그의 신종교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한국은 전국적으로 혼란의 시기에 빠져 있었다. 일부 문종의 세도정치(1860년대 이전)는 점차 순종(1800-1834), 헌종(1834-1849), 철종(1849-1863)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sup>9)</sup> 흥선대원군(1863-1873)은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세력을 물리치려 노력했다.<sup>10)</sup> 한편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에 항의하여 임오군란(1882)이 발생하였다. 보수적인 조정과 개혁세력간의 정치적 알력은 1884년 갑신정변의 도화선이 되었다.<sup>11)</sup> 외교적으로는 강화도에서 미국과 신미양요(1871)라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민족은 일본, 미국과 각각 1876년과 1882년 통상조약을 맺었다.<sup>12)</sup> 프랑스는 가톨릭박해를 이유로 강화도를 침략하여 점령하였다. 조선 조정은 러시아(1884)와 이탈리아(1885) 공관을 세우게 된다. 영국은 또 1885년에서 1887년 사이에 거문도를 차지하였다.<sup>13)</sup>

사회경제적으로 한국정부의 관료주의는 종종 소작료를 현물이나 현금으로 집행하였다.<sup>14)</sup> 착취가 심해지는 경우 소작농들은 민란을 통해

9)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문종은 조선시대 세 이 통치하였던 60여 년간 조정에서 득세하였다.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문사철, 2011), pp.315-316.;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p.8-9.; 김순자, 앞의 글, pp.204-206.

10) 흥선대원군은 고종(1863-1907)의 아버지였다. 이경원, 앞의 책, pp.48-53.

11) 개혁가들은 사회적 평등과 권력을 남용하는 양반의 특권에 반기를 들고 개혁을 모색했다. 갑오개혁(1894), 을미개혁(1895) 및 아관파천(1896) 등은 지속적인 국가의 혼란기를 보여 준다.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p.3-4.; Don Baker, *Korean Spiritual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8), pp.31-89

12) 미국의 함대는 1853년, 1855년, 1865년에 걸쳐 이 땅에 접근한 바 있는데, 무장한 상선 제너럴셔먼호는 1866년 우리나라에 문호개방을 요구했다.

13) 장병길, 앞의 책, pp.13-14.

14) 조선시대는 정부관리에게 제임동안 농지를 나누어 주었다. 한국의 봉건체제는 토

대응하거나 권위에 대척하는 집단에 가입하였다.<sup>15)</sup> 1862년 진주에서 일어난 민란이 그 예이다.<sup>16)</sup>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민란은 하층민인 농민과 노비가 주축이었다.<sup>17)</sup> 그 후 동학농민운동은 강증산이 살았던<sup>18)</sup> 전라도 고부지역에서 일어났다. 지역민중은 탐관오리들에 대항하였는데 이는 흉수나 가뭄 같은 천재지변에도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sup>19)</sup> 종교적으로도 유교, 불교, 도교 등은 평범한 백성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sup>20)</sup> 유교는 정치적 지배집단(유학자 및 조정의 고위 관리들)의 이념적 기준을 제공하였다.<sup>21)</sup> 불교는 고려시대 국교로서 숭배되었으나 조선시대의 정치적 박해 하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잃었다. 도교의 예식은 오래 전 한반도에 전해졌으나 일부 지식인층을 제외하고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치지

---

지소유와 공직과 관련이 없었던 서양과는 달랐다. Suhn-Kyoung Hong, “Tonghak in the Context of Korean Modernization”, *Th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14 (2011), pp.45-46.; 박문석, 「한국 근대 민중종교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pp.7-10.

- 15) 19세기는 매해 평균 약 20여 건의 민란과 반란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지역적이거나 단기간에 끝나고 말았다. Suhn-Kyoung Hong, 앞의 글, pp.45-46.
- 16) 이이화, 『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서울: 한길사, 1994), pp.351-355.; 장병길, 앞의 책, pp.16-17.
- 17)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음식을 훔쳤고, 지방 및 중앙정부는 부패하여 백성들의 혼란스런 상황은 염두에도 없었다.
- 18) 증산계열 130여 개의 종파가 생겨난 가운데 이상호는 1947년에 증산교를 창립하였다. Jong-Sun Noh, “Analysis of Donghak Revolution”,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pp.149-170.; 최동희, 「동경대전의 종교철학적인 이해」, 동학학회 편, 『동학과 동학경전의 재인식』(서울: 신서원, 2001), pp.33-48.; 정규훈, 『한국의 신종교: 동학,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의 형성과 발전』(서울: 서광사, 2001), pp.191-194.
- 19) 전봉준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으나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인 청일전쟁에서 이겼을 때,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바꾸었다.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퇴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Robert Pearson Flaherty, “JeungSanDo and the Great Opening of the Later Heaven: Millenarianism, Syncretism, and the Religion of Gang Il-sun”,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7:3 (2004), p.30.
- 20) 이경원, 앞의 책, p.24.; 박문석, 앞의 글, pp.10-14.
- 21) Kwang-Soo Park, “Introduction to the New Korean Native Religions”,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pp.5-6.

못했다.<sup>22)</sup>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와 부패, 이념적 불만은 근대 한국인에게 어떠한 자신감도 주지 못하며 말세론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했다.<sup>23)</sup> 백성들은 조선의 미래를 비판하였고 새로운 지도자가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되었다.<sup>24)</sup>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발생했다. 이 새로운 종교는 정치적 폭력대신에 창시자의 출현과 임무(appearance and work)를 의미하는 삼계(三界)와 천지공사를 통한 대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sup>25)</sup> 대순진리회는 최고신인 강증산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 신성의 요구에 부합하여 천지를 심도 있게 둘러보았다고 주장한다.<sup>26)</sup> 좀 더 설명하자면 『전경』은 강증산을 구천상제로 부르기도 하는데, 모든 신성, 불, 보살들이 인간세상과 천지신명계를 구원하기 위해 상제에게 구천에서 강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로 규정되기 보다는 스스로가 최고신으로 강림한 것이다.<sup>27)</sup> 이것은 한국의 신종교 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신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관점이다. 이런 대순의 개념은 우주와 통치의 의미를 포함한다.<sup>28)</sup>

---

22) 지역 샤머니즘의 전통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경원, 앞의 책, pp.322-323.  
 23)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준 사상」, 『종교교육학연구』 2 (1996), pp.107-109.; 김근진, 「종말론적 종교-사회적 기능」, 『민족과 문화』 8 (1999), pp.19-35.  
 24) 종말론적 접근인 개념은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윤재근, 앞의 글, p.110.; 김광일, 「한국 신흥종교의 사회문화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1-1 (1972), pp.31-36.  
 25) 대순은 우주창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만물은 기원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순회 속에서 다시 창조될 것이다. 이거룡, 「인도철학의 관점에서 본 대순사상」, 『대순사상논총』 20 (2009), p.200.; 이경원,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대순사상논총』 20 (2009), pp.1-24.  
 26)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269-270.;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궁극적 실재의 제문제』 (서울: 문사철, 2010), pp.383-384.  
 27) 대순진리회의 리더십은 강증산 상제(1871-1909)에서 조정산 도주(1895-1958)와 박우당 도전(1917-1996)으로 계승되었다. “「각처의 종도들에게 순회·연포 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 일이 곧 천지의 대순이라는 말씀을 들었도다.”(『전경』, 교운 1장 64절). 강증산의 어린 시절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pp.66-92.;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pp.116-125 참고.  
 28) 황준연, 「유·불·도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순사상의 의의」, 『대순사상논총』 20 (2009), pp.88-90.

“...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집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전경』, 교운 1장 9절)

전술한 바처럼 대순에 기반한 대순진리는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을 통해 지상낙원의 교리를 가르친다.<sup>29)</sup> 구천상제인 강증산은 천지개벽의 결과인 지상낙원을 건설하며, 그의 신격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전지전능의 하느님)는 은유적으로 그 권위와 힘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구천은 다신론적 체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 즉 구천을 의미하며,<sup>30)</sup> 응원(최고신에 응답)은 모든 신성, 불, 보살들의 최고신의 명(命) 없이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뇌성(천둥과 번개)은 하느님의 전지전능과 조화를 상징한다. 보화(거대한 어울림)는 만물이 하느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존(하늘의 제왕)은 상제가 삼계를 통틀어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신이며 강성상제[성스러운(강씨성의) 하느님]는 전지전능하고 우주만물을 주재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31)</sup> 종통은 조정산 도주(1925-1941&1945-1958)와 박우당 도전(1958-1996)에게 이어졌다.<sup>32)</sup> 이거룡은 인도 브라만(Brahman)의 인격신(personal god), 비인격신(Isvara)과 증산의 신격

29)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An Introduction to Daesoonjinrihoe* (Yeoju: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2009), pp.1-3.

30)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pp.49-60.; 리웬구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29-70.

31)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op. cit., pp.4-5.; 박용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옥추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285-322.; 위귀청, 「대순진리회 구천상제 신앙과 도교 보화천존 신앙 비교」,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157-177.;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1)-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99-156.

32) 조정산 도주(1925-1941&1945-1958)는 신학적으로 대순 교리를 포함한 대순사상을 체계화하였고, 계승자인 박우당 도전(1958-1996)은 후천선경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조직적으로 실천했다.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회논문집』 1 (2006), pp.13-36.; 이경원, 「대순진리회 연원, 도주 조정산의 종교체험연구」, 『대순진리학회논문집』 1 (2006), pp.250-290.;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종교연구』 70 (2013), pp.251-291.

을 비교하여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인격과 비인격을 모두 갖춘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대순진리에서 이런 하느님의 개념은 범신론, 다신론, 일신론 등의 여러 종교관과 연관이 있다.<sup>34)</sup>

### Ⅲ. 대순진리회와 그 신학 체계

그러면 어떻게 대순진리회를 해석할 것인가, 그 신학체계나 신앙은 무엇인가? 다른 신종교와 차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대순진리는 유구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도유망한 미래를 가진 선택된 민족, 즉 한민족의 종교로 이해되곤 했다.<sup>35)</sup> 한국은 상등국으로 설명되며,<sup>36)</sup> 이런 점에서 대순진리회는 일본, 중국, 러시아, 또는 다른 서구세력의 정치사회적 침입에 맞서 국가적 영성을 지키는 수호자였다.<sup>37)</sup> 그런 민족적 관점은 구천상제가 전라북도 금산사 인근에 강세하였고 한국인이 종교·정치적인 수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잘 나타나 있다.<sup>38)</sup> 다음의 일부 실례들은 이 같은 한국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후천을 위해 최제우가 일본과 도교의 새로운 리더로 선택되었고 부처가 아니라 진묵대사가 불교의 종장으로, 전봉준이 한

33) 이거룡, 앞의 글, pp.196-200.

34) 범신론은 자연과 우주에 많은 신이 있다는 신앙이다. 다신론은 하나 이상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차선근, 앞의 글, pp.101-103.;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궁극적 실재의 계문제』, pp.383-394.;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 대순진리회 신관념의 특성」,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1-24.

35) Boudewijn Walraven, “The Parliament of Histories: New Religions, Collective Historiography, and the Nation”, *Korean Studies* 25:2 (2002), p.159.; 황의동, 「대순사상의 유교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20 (2009), pp.125-127.; 노길명 외, 『한국민족종교운동사』 (서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3), pp.132-144.

36) 한국은 인류를 위해 세상을 주재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벽과 지상선경」, 『신종교연구』 29 (2013), pp.222-223.;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51-52.

37) Boudewijn Walraven, 앞의 책, pp.159-160.

38) 김형기, 앞의 책, pp.180-191.

국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관점이다.<sup>39)</sup> 정역의 저자인 김일부는 중국을 위해 선택되었다.<sup>40)</sup>

대순은 또한 메시아적 종교로 인식된다. 기독교의 구원적 관점은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한 구세주 강림을 희망하는 데에 있다.<sup>41)</sup> 렌터나리(Lanternari)에 따르면, 메시아신앙은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 억압, 불안, 긴장, 갈등의 상태에서 갱신과 카타르시스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다.”<sup>42)</sup> 이 같은 기독교의 종말론적 개념은 대순진리에도 적용된다.<sup>43)</sup> 하지만 이 신종교는 아마도 융합의 종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다른 신종교와 마찬가지로 대순진리회는 기본 용어와 유교, 불교, 도교의 전통교리를 가르친다. 일부 규범에 있는 설명들은 기독교나 사머니즘적 요소도 종종 언급하고 있다.<sup>44)</sup> 김종서는 종교현상에 대해 ‘신실한 한국인’을 언급하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종교들이 불안한 긴장 속에서 상존해 왔다고 설명한다.<sup>45)</sup> 이러한 혼용 현상은 종교를

39) 황준연, 앞의 글, pp.82-85.;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증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94), pp.84-86.

40) ‘마테오 리치’는 기독교의 새로운 종장으로 선택되었다. (『대순전경』, 5장 12절. 예를 들어, 『대순전경』 초판, 6장 52절, 『대순전경』 3판, 6장 130절, 『대순전경』 4장 60절.; 한연정, 「마테오 리치와 교류한 한인사대부(漢人士大夫)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pp.26-95(pp.117-118).; 김승혜, 양은용, 차옥승, 노길명, 『한국 신종교와 그리스도교』 (서울: 바오로딸, 2002), pp.33-37.; 황의동, 앞의 글, p.195.; 이정원, 『대순종학원론』, pp.67-68.

41) Han G. Kim, “Religious Protest and Revitalization Movement among Minorities”, *Korea Journal* 20 (1980), pp.17-25.; 최중현, 『한국 메시아운동사 연구』 제2권 (서울: 생각하는 백성, 2009), pp.8-16.; 박종렬, 『차천자의 꿈』 (교양: 장문산, 1996), pp.53-89.; 박문석, 앞의 글, pp.5-20.

42) Vittorio Lanternari, “Messianism: Its Historical Origin and Morphology”, *Journal of the History of Religion* 2:1 (1962), p.52.

43) 강돈구, 『종교이론과 한국종교』 (서울: 박문사, 2011), pp.624-630.; Flaherty, 앞의 책, p.29.

44) 『증산천사공사기』(1926), 『대순전경』(1929), 『선도전경』(1965)과 『전경』(1974). 고남식,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본 대순진리회 『전경』과 증산 관련 경전의 경향」, 『신종교연구』 16 (2011), pp.162-197.; Flaherty, 앞의 책, pp.26-44.; 이원욱, 「천주 실의에 나타난 마테오 리치의 신학 사상」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pp.26-34.; 이재호, 「마테오 리치의 생애와 선교활동」, 『상생의 길-창간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4), pp.51-61.

45) Chong-Suh Kim, “Contemporary Religious Conflicts and Religious Edu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9:1 (2007), p.32.; 강돈구는 더 나아가 한국종교의 공통상은 혼용적인 특성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표하는 최고신이 없는 일부 아시아의 신종교에도 나타난다. 근대 인도네시아의 수부드 운동(Subud movement)은 자바(Javanese)의 신비주의적인 전통, 수피(Sufi)의 신비적인 체험, 카리스마 있는 기독교적인 체험과 유사하다.<sup>46)</sup> 필리핀의 리잘 교단(Rizalist cults)의 기본교리는 스페인 말레이의 식민지 지배 이전 및 필리핀과 가톨릭 요소가 두루 혼용되어 있다.<sup>47)</sup>

만약 대순진리회가 그와 같은 전통종교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대순진리회가 그들 종교들에 단순히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부분적으로는 이와 같은 물음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순은 대순진리라는 궁극의 이념을 제고하기 위해 오히려 옛 동·서양의 종교 신앙을 받아들여 완성하는 성취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순은 불교, 유교, 도교, 가톨릭, 샤머니즘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종교운동은 인간을 신성과 같은 상태로 승화하는 인본주의적인 대순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원리를 가르친다.<sup>48)</sup>

이 말은 신종교(대순진리회)가 선천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천을 준비하는 포괄적인 신앙을 제공한다. 신도들은 후천의 사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이끌어지는데 기독교의 ‘죄의 참회’는 아니지만 4개의 교의는 인간이 세속적 존재로부터 영성계로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sup>49)</sup> 그 교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양합덕 2) 신인조화 3) 해원상생 4) 도통진경

---

돈구, 『종교이론과 한국종교』, pp.558-561.

46) Stephen C. Ulrich, "Evaluating the Charismatic Group Subud: Javanese Mysticism in the West",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3 (2005), pp.161-172.

47) Ramon Guillermo, "Moral Forces, Philosophy of History, and War in Jesé Rizal", *Philippine Studies* 60:1 (2012), pp.5-12.

48) 신명, 영, 귀신, 혼백 등 영적 존재에 대한 정의는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99-103.; 김광일, 앞의 글, pp.31-36 참고

49)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2009), pp.14-15.; Daesoonjinrihoe, "Religions of Kang Il-Soon",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pp.251-261.

기본원리인 음양합덕은 신도들에게 음과 양의 덕을 합할 것을 진작한다. 음과 양은 새로운 용어라기보다는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는데 밝음을 의미하는 양과 어두움을 의미하는 음을 말한다. 옛 중국의 종교는 성리학의 태극사상과 아울러 만물은 모두 반대의 특징과 함께 공존한다는 관점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증산은 『사학』, 『통감』,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등의 유교서적을 통달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sup>50)</sup> 그러나 대순의 가르침, 음양합덕은 인간은 양이요, 신명은 음으로서 ‘조화와 능력’이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양인 인간과 음인 신이 함께 협력하면 혼란한 세상에서 모든 조화가 가능하다.<sup>51)</sup> 이경원과 김순자에 따르면, 음인 여성과 양인 남성의 평등 역시 이러한 교리 속에서 추구되고 있다.<sup>52)</sup>

우리는 정음정양을 통해 성적희롱의 대상이었던 여인의 원을 풀어서 건곤을 만들 것이다. 예법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제부터 남자들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대순전경』 6장 134절)

증산은 유교의 가르침과 조우하였으나 남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격려했다.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때 궁극적 조화의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후천에서는 노력에 따라 여성들도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남존여비와 같은 유교의 구태한 전통과 남성우월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sup>53)</sup>

50) 강증산은 그의 책 『현무경』에서 여러 가지 책에 대해 언급했다. 증산은 유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사회정치적인 필요와 관련한 유교의 요점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하였다. 황준연, 앞의 글, pp.78-79.; 정규훈, 앞의 책, pp.48-53.;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조상의례와 특징」, 『종교연구』 69 (2012), pp.152-155.

51) 황의동, 앞의 글, pp.133-135.; 김승남, 「청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 『종교교육학연구』 42 (2013), pp.28-40.

52) 김일부가 저술한 ‘정역’에는 음양이론이 나와 있다. 『전경』에서 강증산이 정역을 알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온다. 『전경』, 공사 3장 28절, 제생 20절.; 이거룡, 앞의 글, p.218.; 황준연, 앞의 글, pp.80-81.; 김순자, 앞의 글, pp.206-208 참고.

대순진리회 운동은 인간과 신명의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신인 조화의 원칙을 가르친다.<sup>54)</sup> 대순진리회는 수련을 통해 마치 신명과 같이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을 회복하여 다른 이에 대한 분노,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핵심 가르침은 인간이 신성의 위상으로 전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원자의 어떠한 희생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으나 인간은 하느님인 상제가 이 땅에 세운 새로운 천지의 원리, 즉 공사(1901-1909)를 한 이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전한다.<sup>55)</sup> 신인조화의 개념은 인간의 본성이 하늘의 본성을 닮았다는 개념인 유교의 천인합일 사상과 비교할 수 있다. 유교는 하늘의 뜻을 수행하는 대행자가 곧 인간이기에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sup>56)</sup> 나아가, 신선, 선녀, 선, 도인, 도통, 도가, 도장, 서도, 도술 등의 용어도 다양한 주문과 예식<sup>57)</sup>과 함께 쓰이고 있어 중국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58)</sup> 김탁은 증산의 운동이 전통도교의 용어와 예식을 많은 부분 적용한 신종교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sup>59)</sup> 반면, 신인조화는 신명과 인간이 우주의 운행에 상호작용 한다는 창의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신명의 역할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반대로 인간의 행동

53) 『진경』, 교법 1장 68절 참고. 계층 간 사회평등도 포함한다. 『진경』, 교법 1장 10절.;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234-237.;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pp. 119-127.

54) 신명(divine beings)의 구분은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pp.295-297.;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99-108 참고.

55) 뒷장에 나오는 천지공사 부분 참조.

56) 황의동, 앞의 글, pp.138-142.

57) 『대순진경』 2장 127절과 4장 29절(칠성경). 『진경』, 공사 3장 28절(태을주), 시천주, 도통주, 신장주, 신성주, 오주, 갱생주, 봉축주, 진법주, 절후주, 운장주, 28수주, 24절주 등 다양한 주문이 있다. 황준연, 앞의 글, pp.85-88.; 김탁, 『증산교학』(서울: 미래향문화, 1992), pp.58-96.; 치성의례는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20 (2009), pp.133-162.; 강돈구, 앞의 글, pp.145-175.; 장병길, 앞의 책, pp.172-180 참고.

58) 정규훈, 앞의 책, pp.57-59.;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한 비교」, 『신종교연구』 24 (2011), pp.129-155.

59) 김탁, 「증산교단사에 보이는 도교적 영향」, 『도교문화연구』 24 (2006), pp.251-283.;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종교연구』 65 (2011), pp.92-93.

은 신명계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는 신명의 움직임에 기반한 반면 신명의 세계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sup>60)</sup> “사람들의 다툼은 하늘의 신명의 다툼을 초래하지만 신명의 다툼이 끝날 때 인간의 다툼도 결정 난다.”<sup>61)</sup>

해원상생의 원리는 만물이 서로 간 선행으로 원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종교의 세 번째 가르침이다. 세부적으로, 해원은 모든 이가 품은 원(冤)으로 선천<sup>62)</sup>의 원(grievances)을 의미한다.<sup>63)</sup> 그러나 원의 굴레를 풀고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해야 한다. 나아가, 상생은 다른 이를 진실되게 존중하는 것이다.<sup>64)</sup>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전경』, 공사 1장 3절)

60) 이경원은 신인조화개념에서 신명보다 인간의 역할과 책무가 더 확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존’ 부분을 참고. 『대순전경』 6권 3장 103절, 5장 10절, 6장 126절.;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124-128.;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pp.130-136(7).

61) 『전경』, 교법 2장 23절.

62) 『전경』, 공사 1장 3절.

63) 원은 원망과 비통함을 의미한다. 『전경』, 공사 1장 3절, 32절, 2장 3-4절, 3장 5절, 18절과 교법 1장 10절 참고. 신명간, 남녀간, 지역간, 국가간 ‘원’의 사례는 대단히 많다.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pp.132-138.;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pp.72-73.; 황의동, 앞의 글, p.143.;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pp.89-90.

64) 상세한 설명은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80-85.;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pp.100-101 참고.

종단의 지침서인 『대순지침』은 적을 만들지 말 것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라고 가르친다.<sup>65)</sup> 황의동은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 신명 그리고 자연의 관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sup>66)</sup> 해원상생의 관점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면 친구의 목표도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함을 뜻하는 유교의 개념, 인피천하(仁被天下)와 관련이 있다.<sup>67)</sup> 해원상생의 가르침은 씻김굿, 진오귀굿 등의 샤머니즘적 신앙과 불교의 천도재, 수륙제(水陸齋), 유교의 여제(厲祭)나 엄격매자(掩骼埋胔) 등에 나타나 있는 희생 개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up>68)</sup> 신종교 발리 아가마 힌두교(Balinese Agama Hinduism) 행위의 세 가지 규범은 좋은 생각을 하고, 진실되게 말하며 옳은 행위를 할 것을 신도들에게 촉구하는 점에서 유사하다.<sup>69)</sup> 노길명은 해원의 가르침은 대부분 신종교의 공통적인 교리라고 말한다.<sup>70)</sup> 하지만 대순진리회는 신도들의 생활에서 현재의 경험을 존중하는 실천적 진리를 강조한다.<sup>71)</sup> 이경원은 아시아의 유교, 불교, 도교의 대응종교로서 대순진리회가 대순사상을 통해 인간의 의지를 창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으며 지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72)</sup> 더 나아가 인간은 현실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포

6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27.

66) 황의동, 앞의 글, pp.146-147.

67) 같은 글.

68) 씻김굿(퇴마의식: 샤머니즘적 행위)은 죽은 이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샤먼의 제식이다. 진오귀굿은 죽은 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주기 위해 원을 푸는 굿이다. 천도재는 죽은 혼을 극락에 보내는 불교제식이다. 수륙제는 물과 대지의 영들을 불교적 메시지와 제사음식을 통해 위로하는 불교제식이다. 여제(厲祭)는 불행하게 죽은 여성의 혼을 달래는 유교의 제식이다. 엄격매자(掩骼埋胔)는 죽은 자 또는 돌보지 않아 찌지 않은 시신을 매장하는 행위이다.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pp.89-119.

69) June McDaniel, "Agama Hindu Dharma Indonesia as a New Religious Movement: Humduism Recreated in the Image of Islam",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14:1 (2010), pp.93-103.

70) 노길명, 『한국신종교연구』 (서울: 경서원, 2001), pp.56-60.

71)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pp.22-23.;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pp.84-93.

72) Gyung-Won Lee, "A New Paradigm of the Daesoon Thought with Special References

함한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따른다 해도 스스로의 독립성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73)</sup> 나아가,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의 원리가 후천에 응용된다고 가르친다. 해원은 상생으로써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고 상생은 해원의 과정으로써 그것의 영원한 창조력(eternal creativity)을 유지하는 것이다.<sup>74)</sup> 이에 대순에서의 인간은 인간과 자연계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는 공존의 원리를 준수할 수 있다.<sup>75)</sup>

대순의 네 번째 원리는 도를 깨달음으로써 도통진경이라는 궁극의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sup>76)</sup> 이 가르침은 다른 세계의 가르침을 결론짓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도통은 인간의 관념적 단계이다. 그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련을 통해 구천상제의 가르침 안에서 인격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궁극의 단계에 가기 위해 이 신종교는 다음 세계의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무자기(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sup>77)</sup> 대순진리회 신도들에게 도통진경의 상태는 각자의 수도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sup>78)</sup>

이거룩은 도통진경을 인도의 우주관과 비교한다. 순환의 후반인 후천은 이상세계이다. 인도 우주순환에서 전기(beginning)를 뜻하는 크

to Characteristics of the Ideas of Haewon-Sangsaeng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Religions in Korea: New Religious Movements in Korea as a Paradigm Shift* (Claremont, CA: Claremont University, 2010), pp.88-90.

73)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399-403.;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pp.107-111.

74)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pp.152-153.

75)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궁극적 실재의 재문제』, pp.83-93.

76) 도통진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대진, 「도통진경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5 (1998), p.8.; 이항녕 「도통진경 사상의 현대적 의미」, 『대순사상논총』 5 (1998), pp.31-33.; 대진미디어 편집부, 『도통』 (서울: 대진미디어, 2008), pp.222-243.

77)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pp.200-202.;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pp.86-95.

78) 『진경』, 교운 1장 34절,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는 七十二명만 통 예시켰고 석가는 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pp.177-178.

리타(krita)는 관념적인 요소가 가장 많다. 후천은 갈등과 악이 없는 시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도우주관은 외형의 미(美)와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sup>79)</sup> 황의동은 도통진경이 유교의 가르침, ‘대동’(大同)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대동은 진리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공유되며 이는 곧 사적 소유가 없고, 사회·정치적 차별이 없는 공평한 세상이다.<sup>80)</sup> 그러나 도통진경의 가르침은 인도나 중국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사상과 철학의 구분 없이 합일성(eness)을 찾도록 독려하는 원시반본이라는 가르침과 특히 연관되어 있다.<sup>81)</sup> 증산은 “이 시기는 원시반본으로써 근본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라고 말하고”<sup>82)</sup> 도통진경의 상태는 원시(갈등이 없던 시대)로 돌아가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정규헌은 이러한 관념적 세계는 사람이 자연과 이치의 변화를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가오는 신세계는 온전히 인간에게 달려있다. 참혹한 세상의 상태는 다시 복원될 수 있다. 양심과 인내심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의 방법이다.<sup>83)</sup> 증산은 이런 우주의 본질이 곧 마음이라고 가르쳤다.<sup>84)</sup>

#### IV. 예언, 천지공사, 인존시대의 성취

이 신종교의 네 가지 원리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소개한다면 강증산의 역사적 출현은 미래불인 미륵신앙과 연관이 있다. 아미타경과 법화

79) 이거룡, 앞의 글, pp.201-218.

80) 황의동, 앞의 글, pp.147-167.

81)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pp.147-162.

82) 『대순진경』, 6장 124절.

83) 같은 책, 3장 50절, 6장 143절.; 정규헌, 앞의 책, pp.142-143.

84) 같은 책, 6장 30절.

경과 같은 불경의 미륵은 이 땅에 나타나 도통하고 진리를 전할 보살이다.<sup>85)</sup> 불교의 상좌부(上座部, Theravāda), 대승(大乘, Mahāyana), 밀교(密敎, Vajrayāna) 종파의 불경 역시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잊을 때 미륵불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sup>86)</sup> 후한시대(200 BCE-200 CE) 태평도와 연관이 있는 일관도의 종장들은 이러한 부처나 신성의 화신으로 간주되고 있다.<sup>87)</sup> 이중 17번째 종장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다음 종장은 지공 승려의 화신으로 여긴다.<sup>88)</sup> 대순진리회는 불교의 예언적 성취인 종말론적 관념도 있으나 강중산이 인간계와 신명계의 어지러움을 구하여 바로잡고자 미륵으로 강세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미륵신앙은 흔히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신앙이기도 하다.<sup>89)</sup> 미륵신앙은 인도, 중국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통일신라시대(676-935 AD)에 정착하였다.<sup>90)</sup> 미륵불의 출현 후 진표율사는 금산사에 미륵불의 형상을 만들었다.<sup>91)</sup> 한국의 미륵사상은 한국이 야말로 선천세상의 원을 풀고 후천선경이라 하는 새로운 세상의 지도

85) Alan Sponberg and Helen Hardacre, *Maitreya, the future Buddh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홍범초, 「한국의 미륵신앙으로 본 유토피아 건설」, 『제2회 미륵사상학술주제논문』, 미륵대도 금강연화중 편 (서울: 미륵사상연구회협의회, 1999), pp.38-54.

86) Akira Miyaji, "Iconography of the Two Flanking Bodhisattvas in the Buddhist Triads from Gandhāra: Bodhisattvas Siddhārtha, Maitreya and Avalokiteśvara", *East and West* 58:4 (2008), pp.123-156.; Enrique Verástegui, "Maitreya", *Callaloo* 34:2 (2011), p.250, 468.

87) 이 신종교는 1947년 중국에서 천오백만 명의 신도를 확보하였다. 대만에는 1949년 이후 본격 진출하였다. Lu Yunfeng and Graeme Lang, "Impact of the State on the Evolution of a Sect", *Sociology of Religion* 67:3 (2006), pp.249-270.

88) 아직 일관도의 종장은 인류의 구원자 또는 구세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같은 책.

89) 윤계근, 앞의 글, pp.109-112

90) 황선명은 미륵사상이 현세의 상황에 반하는 종말론적 메시아사상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홍범초 앞의 책, pp.38-54.; Pankaj N. Mohan, 「Koguryo's Buddhist Relations with Silla in the Sixth Century」, 『대순사상논총』 19 (2005), pp.201-218.; 황선명, 「민중문화로서의 미륵신앙」, 『제2회 미륵사상학술주제논문』, 미륵대도 금강연화중 편 (서울: 미륵사상연구회협의회, 1999), pp.63-65.

91) 황선명, 앞의 글, pp.48-51.; 금산사지 간행위원회, 『(미륵도량 모악산) 금산사』 (김제: 금산사, 2005), pp.10-51.; 김남윤 외, 『금산사』 (서울: 대원사, 2007), pp.8-16.



자라는 중책을 맡은 나라라는 관념을 담고 있다.<sup>92)</sup> 이러한 예언적인 계시는 19세기 후반 강증산이 나타나면서 역사적인 성취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상제께서 구원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최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습니다. (『전경』, 예시 1절)

증산의 언행은 대순사상이 한국적 불교의 새로운 선상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신종교의 신도들은 자신들의 최고신과 불교와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산의 최고신으로서의 출현은 오히려 불교적 예언의 성취로 보일 것이다. 다음의 증산의 말씀은 미래의 부처, 미륵으로서 성취 관념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제는 말하기를 나는 미륵이다. 모악산 금산사의 미륵금강은 손에 여의주를 받았으나 나는 입에 물고 있도다.”<sup>93)</sup> 이것이 대순사상이 불교전통에 의존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순진리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샤머니즘 등 다른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마리아는 과거의 깨달음을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주의 새로운 탈근대적 원리를 촉진(promote)하기 위해서 증산이 전통종교의 발전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적 다원주의로 해석한다.<sup>94)</sup>

이 같은 미륵예언의 성취는 천지공사에 의해 이루어졌다.<sup>95)</sup> 기독교

92) 황선명, 앞의 글, pp.52-54.

93) 『증산천사공사기』, p.146.; Boudewijn Walraven, 앞의 책, pp.160-163.; 노길명 외, 앞의 책, pp.135-137.

94) 박마리아, 「포스트모던 사회와 대순진리회」, 『신종교연구』 20 (2009), pp.32-33.

는 신적, 육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기 전에 3년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의 목회활동을 행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대순진리회의 하느님은 삼계의 어지러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신성, 불, 보살의 요청을 독립적으로 성취하는 신적 특징을 가진 인간이다.<sup>96)</sup> 대순진리회에서 죄의 의미는 독특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욕망, 시기, 질투는 이 신종교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전경』은 천지공사가 9년간(1901-1909) 행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수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마태복음 4장 17절). 하지만 상제는 후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천지의 어긋난 원리를 다시 세웠다는 것이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전경』, 공사 1장 3절)

장병길은 선천은 공간적으로 동과 서로 나뉘어지며 유교, 불교, 도교와 기독교의 네 종교로 구별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후천은 천지공사의 결과로 시간의 기준(standard of time)을 근간으로 한다.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에 의해 다양한 종교들이 통합되어 천·지·인 삼계가 서로 상호작용 한다고 설명한다.<sup>97)</sup> 삼계 이전 사상은 혼용되었다기보다 삼계공사(즉 천지공사)를 통해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는 기초, 동량과 제세라는 세 가지 공정으로 시행된다. 기초공정은 낡은 것을

95) 장병길, 앞의 책, pp.94-96.; 김기수, 『민족종교 그 실천적 인간학: 수운 최제우에서 의암 손병희, 증산 강일순까지』 (서울: 아하, 2003), pp.247-257.; 장재진,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 (부산: 산지니, 2011), pp.220-227.;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궁극적 실재의 체문제』, pp.409-414.

96) 『전경』, 교법 3장 1절; 김기수, 앞의 책, pp.282-297.

97) 『현무경』. 장병길, 앞의 책, pp.94-96.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동량공정은 새로운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며, 제세공정은 이러한 새로운 기초 위에 후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었다.<sup>98)</sup> 삼계공사는 또한 우주의 무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인식된다. 즉 천지의 법도를 세우고 만물의 원을 풀고 장차 상생의 도로써 후천의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것이다.<sup>99)</sup> 이와 같은 상제의 분명한 행위는 상제 스스로가 모든 권위와 힘의 주재자이자 수장으로서 조화로운 통치를 위한 논의의 결과에 의해 실행되었다.<sup>100)</sup> 김탁과 차선근이 주장하듯이 천지공사의 사상은 지상선경이라는 이상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대순진리회 창시자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학,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과도 연관되어 있다.<sup>101)</sup>

이와 같은 지상선경을 세운다는 관념은 인존사상과 매우 관련이 깊다. 이러한 점에서 상제는 현시대가 바로 인존의 시대임을 선언하였다. “인존이 지존과 천존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도를 깨닫는데 진력을 다하라.”<sup>102)</sup> 인존시대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궁극적 목적이 천지의 주요대상으로서 공유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선천에서 인간은 천지의 주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상제의 노력에 의해 인류의 정체성은 위상이 높아졌다.<sup>103)</sup> 인간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결정하지 않았으나 『전경』에는 상제가 신명공사를 통해 신보다 인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신명과 조화롭게 지낼 것을 인간

98) 『대순전경』, 3장 24절, 4장 40절, 5장 1-10절, 6장 36절. 종단의 목적에 따르면, 노길명은 운도공사, 신도공사, 인도공사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천지공사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장병길, 앞의 책, pp.97-115.; 장재진, 앞의 책, p.221; 노길명, 앞의 책, pp.306-308.

99) 『증산천사공사기』, pp.10-11.; 윤재근, 앞의 글, pp.113-115.;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증산의 생애와 사상』, pp.75-79.

100) 『전경』, 공사 1장 2절, 교운 1장 19절.; 노길명, 앞의 책, pp.113-122.

101) 『전경』, 공사 1장 35절, 3장 5절, 3장 8절, 교법 2장 17절, 2장 56절, 예시 12절, 17절, 80-81절.; 김탁, 『증산 강일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pp.118-187.; 김형기, 앞의 책, pp.144-148.;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혁과 지상선경」, pp.233-246.

102) 『전경』, 교법 2장 56절.; 『대순전경』 6장 119절.

103) 김승남, 앞의 글, p.32, 41.

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sup>104)</sup> 인존사상이 비록 한국의 신종교들 사이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비판도 일고 있으나,<sup>105)</sup> 이경원은 인존사상의 의미를 인간이 천지의 모든 권위와 힘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주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6)</sup> 다시 말해, 천지는 우주의 물질적 차원이며 신명은 우주의 영적차원이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인간 안에서 역동한다.<sup>107)</sup> 이러한 인존사상은 인간이 우주에서 영적, 물질적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중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발전해 왔다.<sup>108)</sup> 대순진리회의 치성은 인존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up>109)</sup> 가시적인 자연계와 비가시적인 우주에서 인간의 우월성은 유대교, 기독교, 회교 등의 아브라믹(Abrahamic) 종파들에서는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종교의 인간중심관은 서양종교의 신중심관보다 대순진리회의 인존사상과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sup>110)</sup> 그러나 대순의 인존은 천지공사 이후에는 평등이라기보다는 신명들이 협력하여 최고의 위상을 가진 인간을 추구한다.<sup>111)</sup> 이는 새로운 우주의 원칙이 대순진리회의 하느님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104) 『전경』, 공사 1장 12절, “상제께서 「그대의 말이 과연 옳도다」 하시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자 신명 공사를 행하셨도다.”; 같은 책, 권지 1장 6절, “상제께서 「그것은 신명 공사에서 작정된 것인데 어찌 결실하기도 전에 농작을 예기할 수 있으리오」 하시고 중도들의 성급함을 탓하시니라.”; 노길명 외, 앞의 책, pp.140-144.

105) 박문석, 앞의 글, pp.20-21.; 장재진, 앞의 책, pp.284-288.

106)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p.153.;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궁극적 실재의 체문체』, pp.395-403.

107) 이경원·최경익, 앞의 글, p.153.

108) 윤재근, 앞의 글, pp.115-116.

109)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p.153.

110) 한국의 신종교(동학,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는 인간과 신명간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유사한 관점을 전개해 오고 있다. 노길명, 앞의 책, pp.134-138.

111)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 상제가 새로운 우주의 법칙을 완성하였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문일석, 『남을 잘되게 하라』 (서울: 태일출판사, 1997), pp.146-151.

## V. 결론

대순진리회는 19세기 말 조선의 사회,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한 신종교이다. 근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국가들에도 신종교가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종교의 형식에서 발전한 것도 있고 일부는 기독교의 교리를 각자 재생산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카오다이즘(Caodaism, Đạo Cao Đài)과 필리핀의 리잘 교단(Rizalist cults)은 동서양 종교의 철학적 결합의 산물이었다. 베트남의 시인이자 예언가인 응웬빈키엠(Nguyễn Bình Khiêm, 1491-1585), 중국의 혁명을 이끈 지도자 쑨원(Dr. Sun Yat Sen, 1866-1925)과 프랑스의 작가 빅토 휴고(Victor Hugo, 1802-1885)는 카오다이즘이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다.<sup>112)</sup> 마찬가지로 대순진리회는 아시아와 서양종교의 전통 사상을 표면상으로는 피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문화적 영향을 미친 전통종교들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데 유연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상이 이 신종교의 단점은 아니다. 오히려 대순진리회의 강점이다. 왜냐하면 구천상제의 출현이 과거의 모든 종교의 기대, 바람, 희망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대순의 하느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직접 육화한 행위가 특별한 사상인데 하늘의 뜻에 따라 계시를 받고 신종교운동을 떠나간 다른 창시자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시대 독자들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등,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해 융합적인 의미로 접근했지만 점차 상제의 가르침의 창의적인 적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종성과 차선근은 『전경』이 불교, 유교와 아울러 도교의 많은 사상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대순진리회 교리는 이들 종교에서 인간의 조화로운 화해, 평화관, 그리고 이상향

112) Victor Oliver, *Caodai Spiritism: A Study of Religion in Vietnamese Society* (Leiden: Brill, 1976).

등의 모든 관념을 그저 다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sup>113)</sup> 대순진리회의 성취개념은 이 땅에 구천상제의 출현과 존재가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었음을 설명한다. 증산은 불교적 예언의 성취를 설명하는 미래불인 미륵이며 천지공사의 성공적인 완성은 지상낙원을 세우기 위해서 도교와 유대교(메시아)의 예언을 성취 하였음을 보여준다.<sup>114)</sup> 더 나아가 대순의 인존사상은 인간의 신분상승을 위한 반 유교적 신분주의의 성취를 말한다.<sup>115)</sup> 이러한 점에서 대순진리회의 성취개념은 창시자 증산이 천지의 임무, 원시의 모든 신성, 불, 보살의 요청을 완수했음을 시사한다.<sup>116)</sup>

113) 『전경』, 교운 1장 40절, 교법 3장 24절.; 이종성, 「대순진리회의 도가적 배경에 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20 (2009), pp.309-315.;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pp.89-119.

114) 도교는 도통군자가 미래에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다. 그 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창세기 22:18) 그는 유다에게 예언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도다.”(창세기 49:10). Boudewijn Walraven, 앞의 책, pp.160-163.

115) 구천상제는 소우주인 인존이 하느님(supreme being)이 되는 방법을 열어주었다. “천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소우주가 되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천지를 관리감독(superintend)할 수 있다.” 장재진, 앞의 책, (2012), pp.284-288.; 윤재근, 앞의 글, p.121.

116) 『전경』, 교운 1장 9절.

# Daesoonjinrihoe in Korean New Religious Movements\*

David W. Kim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                                       |                                            |
|---------------------------------------|--------------------------------------------|
| I. Introduction                       | IV. Prophecy, Cheonjigongsa, and Injon Era |
| II. Daesoonjinrihoe in Modern Korea   | V. Conclusion                              |
| III. Daesoonjinrihoe and Its Theology |                                            |

## I . Introduction

Western powers and authorities started to explore the nations of different continents in modern history. Asian countries likewise were under the wave of colonialization and the religious transformation. Among the nations of East Asia, the situation of Korea was not different.

---

\* Although *Daesoonjinrihoe* is the most common name for the new religion, the religious organization has been expressed in many ways, such as the *Daesun Jinriho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Daesunjinrihui*, *Daesun Chilihoe*, *Daesunchil lihoe*, *Daesoon Jinrihoe*, *Taesunchillihoe*, and *Daesŏn Chillihoe*. The terms of *Daesoonjinrihoe*, *Daesoonjinri*, *Daesoon*, *Daesoon Truth*, or Fellowship of *Daesoon* will be generally used for the new religion or their doctrine in this pap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early modern time was the historical era where the new religious movements initially emerged into the feudal state of the Joseon Dynasty. Among the major new religions of Korea, the Jeungsan movement was based on the teachings of Jeungsan Kang Il-Sun (1871-1909) and established in the late nineteenth-early twentieth centuries. The legacy and tradition of the founder was transmitted by the denomination called, *Daesoonjinrihoe* (or the Fellowship of *Daesoon*), one of the fastest growing groups in the Jeungsan movement. The *Daesoon* organization is composed with five major Temple complexes,<sup>1)</sup> 200 Fellowship Halls (called, *Hoegwan*), and 2000 community centers (called, *Podeokso*) across the nation. The sacred site called *Yeong Dae* (altar) where the founder (the supreme God, *Sangje*) and the deities of the Universe are worshipped is the allocated space at the Temples with various functional facilities.<sup>2)</sup> The Fellowship Halls (called, *Hoegwan*) regionally function as the place for members conducting sacred activities including religious rites, training, and organizing social campaigns. The community centers for the propagation of virtue (*Podeok*) are the places where groups of people worship and learn about necessary information locally.<sup>3)</sup>

Like the Japanese new religion of Soka Gakkai promoting *kōsen rufu* as a practical mission of escape from poverty, illness, and social strife,<sup>4)</sup> the Daesoon Truth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

1) They are located in *Yeosu*, *Junggok*, *Toseong*, *Pocheon*, and *Jeju*.

2) They annually scarify various memorial offerings. See Don-Ku Kang, "Main Rituals of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73 (2013), pp.145-175.

3)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Daesoonjinrihoe: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Yeosu: Daesoonjinrihoe Press, 2010), pp.44-49.

4) Levi McLaughlin, "Did Aum Change Everything? What Soka Gakkai Before, During, and After the Aum Shinrikyo Affair Tells Us About the Persistent 'Otherness' of New Religions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9:1, (2012), pp.56-58.



organizations in voluntary services of aid and charity, social welfare, and education.<sup>5)</sup> They globally and locally support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by providing food, water, machines, entertainment, and an environmental campaign.<sup>6)</sup> The denominational hospitals and nursing homes actively promote the new style of the public health.<sup>7)</sup> The Daesoon Scholarship Foundation (DSF) is dedicated to training young men and women through the educational institutes of Daejin University and six high schools.<sup>8)</sup>

## II. Daesoonjinrihoe in Modern Korea

Then, what is the historical origin of *Daesoonjinrihoe*? How can one understand the founder of the new religion? What does *Daesoon* mean? When Jeungsan Kang began his movement in the late nineteenth

---

5) One of their resources indicates that over 70% (approximately 530 million dollars) of the total donation during the period 1976–2009 was allocated to perform the social vision of the movement.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op. cit., pp.36–41.; The Society of Korean Religions, *Research Report of Korean New Religions* (1996), pp.93–137.; Gyung-Won Lee and Gyeong-Ik Choi, “The Present State and Assignment in Social Welfare of Daesoonjinrihoe: Focused on Unit-Care System of the Senior Care Institution”,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5 (2011), pp.245–248.

6) The activities of fire prevention, traffic safety, street cleaning, crime prevention, farming, finding missing children, and helping senior citizens are also performed based on the Daesoon purpose of Aid and charity. Deuk-Hwan Ku, “Daesoonjinrihoe of Korea and the Social Function”, *Korea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9 (1999), pp.140–148.

7) It was awarded by the local government.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op. cit., p.39.

8) Hakyee Daejin High School, Joongkye Daejin Girls’ High School, Boondang Daejin High School, Ilsan Daejin High School, Sooseo Daejin Electronic and Technological High School, and Educational Work. Soon-Ja Kim, “Women’s Social Educational Function in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 (1997), 209–211.; Deuk-Hwan Ku, op. cit., pp.140–148.

century, modern Korea was nationally confused. The political influences of certain clans, the so called *Sedo* politics(pre-1860s), gradually overshadowed the three royal powers of Soon Jong(1800-1834), Hun Jong(1834-1849), and Chul Jong(1849-1863).<sup>9)</sup> Regent Heungseon Daewongun(1863-1873) tried to defeat the political powers of *Andong Kim* and *Pungyang Jo*.<sup>10)</sup> Meantime, there was the Im-O Military Revolt(1882), which was initiated by the unfair treatment between the old and modernized military groups.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court and a reforming faction led to the *Gapsin Coup* in 1884.<sup>11)</sup> Diplomatically, the United States confronted the Korean military in Gangwa Island (called *Sinmiyangyo*: 1871). The Korean (han) ethnic eventually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n 1882, just after the treaty with Japan(1876).<sup>12)</sup> France invaded and occupied portions of Ganghwa Island by the reason of Catholic persecution. Soon after, the Joseon government established embassies with Russia(1884) and Italy(1885). The United Kingdom eventually occupied Geomun Island in 1885-87.<sup>13)</sup>

9) The clans of Andong Kim and Bungyang Choi dominated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three kings of Joseon Dynasty for sixty years. Gyung-Won Lee, *Korean New Religions and Daesoon Thought* (Seoul: Munsachul Press, 2011), pp.315-316.; Hyeong-Ki Kim, *A Study on the Hoocheon Gaebyeok Ideology*; (Seoul: Han-aul Academy, 2004), pp.8-9.; Soon-Ja Kim, op. cit., pp.204-206.

10) He was the father of king Gojong(1863-1907). Gyung-Won Lee, op. cit., pp.48-53.

11) The reformers sought to reform the nation in terms of social equality and the elimination of the privileges of the *yangban* class (high class) which had often abused their powers (by the practice of tax evasion). The political events of "Gabo Reform"(1894), "Eulmi Incident"(1895), and "Korea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1896) show a continuous situation of the nation unsteady. Byong-Kil Jang, *Daesoonjinri Thought* (Seoul: Daesoonjinri Thought Institute, 1989), pp.3-4.; Don Baker, *Korean Spiritual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8), pp.31-89.

12) As American ships had approached Korea in 1853, 1855, and 1865, an American armed merchant marine side-wheel schooner (the General Sherman) attempted to trade with Korea in 1866.

13) Byong-Kil Jang, op. cit., pp.13-14.

Socio-economically, the bureaucracy of the Korea government often enforced collection of rents in kind or in cash.<sup>14)</sup> In cases in which exploitation became extreme, the peasants (tenant farmers) reacted through revolt or joining with dissatisfied groups against authorities.<sup>15)</sup> For example, there was a social revolt in Jin-Ju town in 1862.<sup>16)</sup> The so called, Jun-Ju Uprising involved low class citizens including farmers and servants.<sup>17)</sup> Afterward, the *Donghak* Rebellion (“Farmers’ Rebellion”) occurred in the Gobu area of Jeolla Province where the founder of the Jeungsan movement, Jeungsan Kang dwelled.<sup>18)</sup> The corrupt officials opposed the regional people. While there were the ongoing natural disasters of flooding and drought, the heavy taxes extremely challenged the low class people (farmers).<sup>19)</sup> The religious traditions of Confucianism, Buddhism

---

14) The Joseon Dynasty distributed land to office-holders during their tenure. The feudal system of Korea (between landholding and office-holding) was different than the West where landholding was not related with the office-holding. Suhn-Kyoung Hong, “Tonghak in the Context of Korean Modernization”, *Th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14 (2011), pp.45-46.; Moon-Suck Park, *Modern People's Religions of Korea and Its Impacts on Modernization in Korea*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1985), pp.7-10.

15) The late nineteenth century saw such civil uprisings and revolts on an average of roughly twenty each year, even though most of them were not successful except locally or for short times. Suhn-Kyoung Hong, op. cit., pp.45-46.

16) Lee-Hwa Lee, *Political Thoughts and Social Change in Late Joseon Dynasty*, (Seoul: Hangilsa, 1994), 351-355.; Byong-Kil Jang, op. cit., pp.16-17.

17) The people had to steal food to survive, for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with its own corruptions, did not concern the chaotic situation of the citizens.

18) While there are about 130 denominations in the Jeungsan movement, Sang-Ho Lee once established the so called ‘Jeungsangyo’ in 1947. Jong-Sun Noh, “Analysis of Donghak Revolution”,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pp.149-170.; Dong-Hee Chio, “The Religio-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Dongkyoung-Daejun”, in *Donghak and Re-recognition of Donghak Canon*, edited by the national Society of Daonghak (Seoul: Sinsuwon, 2001), pp.33-48.; Kyoo-Hoon Jung, *New Religion of Korea: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Donghak, Chungsan gyo, Daejonggyo, Won Buddhism* (Seoul: Sukwangsas: 2001), pp.191-194.

19) Bong-Jun Jeon became the leader of the *Donghak Peasantry Movement*, even though the social reaction ended up in a year (mainly January, March and October

and Daoism also had a certain distance from the ordinary people.<sup>20)</sup> Confucianism used to function as the ideological standard of the political ruling class (Confucian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sup>21)</sup> Buddhism was respected as the national religion in the time of *Goryeo*, but lost its social impact under the political persecution of the Joseon Dynasty(1392–1910). The rituals of Daoism had been transmitted into the Korean peninsula long before, but i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life of the ethnic people except for some intellectual followers.<sup>22)</sup> Such a national insecurity, corruption, and ideological dissatisfaction gave no confidence for the early modern Koreans, but to seek a new hope at the time of *malse* (the end of the world).<sup>23)</sup> The citizens did not see any future of the Joseon Dynasty, but expected a new era with a new leader.<sup>24)</sup>

---

1894). It is not a deniable fact that the farmers' social movement directly caused the Sino-Japanese War(1894–95) and the Russo-Japanese War(1904–05). When Japan won the Sino-Japanese War(1894–1895) between Japan and China, Joseon renamed the nation as the Korea Empire. Russia became the strong partner until being defeated by Japan in the Russo-Japanese War(1904–05). Robert Pearson Flaherty, "JeungSanDo and the Great Opening of the Later Heaven: Millenarianism, Syncretism, and the Religion of Gang Il-sun",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7:3 (2004), p.30.

20) Gyung-Won Lee, op. cit., p.24.; Moon-Suck Park, op. cit., pp.10–14.

21) Kwang-Soo Park, "Introduction to the New Korean Native Religions",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pp.5–6.

22) It was rather transformed within the spelling traditions of the local shamanism. Gyung-Won Lee, op. cit., pp.322–323.

23) Jae-Keun Youn, "Daesoonjinrihoe and Injon(The Supreme Being of Man) Thought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 (1996), pp.107–109.; Kyuun-Jin Kim, "The Religious-Sociological Function of Eschatology", *People and Culture* 8 (1999), pp.19–35.

24) The eschatological approach was commonly perceived as that when the time of *Kaebuyuk* (the moment of opening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begins the Pre-Heaven (*Suncheon*) will be ended up and the Post-Heaven (*Hucheon*) will be launched. Jae-Keun Youn, op. cit., p.110.; Kwang-Iel Kim, "New Religions in Korea: The Socio-Cultural Consid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1:1 (1972), pp.31–36.

*Daesoonjinrihoe* emerged from this kind of a chaotic era within Korea. The new religion, instead of being politically violent, was based on the philosophy of *Daesoon* (the Great Itineration throughout the Three Realms and reordering the Universe), which referred to the appearance and work of the founder.<sup>25)</sup> This religion claims that Jeungsan Kang as *Choi-go-shin* was incarnated into a human form and went through the Universe carefully on the request of divine spirits.<sup>26)</sup> In detail, Jeungsan Kang, also so called *Gucheon Sangje*, according to the canon (*Jeongyeong*), was urged by all the divine sages, Buddhas, and bodhisattvas to come down from the Ninth Heaven to earth to save the human world, earthly world, and spiritual world. He is not seen as a Son of God, but as the advent of the supreme God himself.<sup>27)</sup> This is a unique perspective not only in Korean new religions, but also in Asian new religions. The concept of *Daesoon* contains the meanings of space and sovereign<sup>28)</sup>:

---

25) In other word, Daesoon mean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All creatures go back to the origin and will be re-created in the eternal circulation. Geo-Lyong Lee, "Daesoon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n Philosophy",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 (2009), p.200.; Gyung-Won Lee, "The Present Status and Vision of the Research on Daesoon Thought",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 (2009), pp.1-24.

26) Gyung-Won Lee (2011), pp.269-270.; Gyung-Won Lee, *Religious Thoughts of Korea: Jae-Issues of Ultimate Realism* (Seoul: Munsachul Press, 2010), pp.383-384.

27) The leadership of *Daesoonjinrihoe* was inherited from Sangje Kang(1871-1909) to *Doju* Cho(1895-1958) and *Dojeon* Park(1917-1996). "Let the disciples in all places go on a great mission and spread my teachings; this is what I call *Daesoon* for the World" (*Jeongyeong, Gyowun* 1:64). For the childhood of Jeungsan Kang Il-Sun, see Gyung-Won Lee, *Belief Theory of Daesoonjinrihoe* (Seoul: Munsachul Press, 2012), pp.66-92.; Gyung-Won Lee, *Daesoon Chonghak Wonlon* (Seoul: Munsachul Press, 2013), pp.116-125.

28) Joon-Yon Hwang, "The Meaning of Daesoon Thoughts on the Basis of Asian Traditional Philosophy",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0 (2009), pp.88-90.

When all the divine sages, Buddhas, and bodhisattvas who have existed since the origin of the universe gathered and petitioned the Lord of the Ninth Heaven for the salvation of the human world and of the spiritual world from their pre-dicaments, I descended to the Cheongye Tower (the Tower of the Revelation of Heaven) in the Western Land of the Great Law, and finally, on my Daesoon, I reached the Eastern land. (*Jeongyeong, Gyowun* 1:9)

Based on the above meaning of *Daesoon*, the new religion teaches the doctrine of *an earthly paradise* through the renewal of human being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ir spirits.<sup>29)</sup> Jeungsan Kang, the Lord of the Ninth Heaven is seen to establish the earthly paradise as the result of reordering the Universal. His full name of *Gu-cheon Eung-won Nweh-seong Bo-hwa Cheon-jon Kang-seong Sangje* (all mighty God) metaphorically reflects the potentiality of authority and power<sup>30)</sup>; the divine name *Gu-cheon* means the God of the highest heaven, Ninth Heaven in polytheism; *Eung-won* (Response to the Supreme) means that no phenomena is able to come into being without a command of the supreme God of all the divine sages, Buddhas, and bodhisattvas; *Nweh-seong* (Lightning and Thunder/Thunderbolt) symbolizes the mighty and harmonious power of the supreme God; *Bo-hwa* (Vast Becoming) signifies that everything exists by the creative activity of the supreme God; *Cheon-jon* (Majesty of Heaven) means that *Sangje* is the holiest and greatest

---

29)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An Introduction to Daesoonjinrihoe* (Yeoju: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2009), pp.1-3.

30) Gyung-Won Lee (2013), pp.49-60.; Waen Gwa Lee, "Belief of Gu-cheon Eung-won Nweh-seong Bo-hwa Cheon-jon",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pp.29-70.

deity throughout the three realms of heaven, earth, and human beings; and *Kang-seong Sangje* (Holy Kang the Lord) is the honored name of the omniscient and omnipotent, overruling all the creatures of the Universe.<sup>31)</sup> The leadership was inherited by the spiritual successors of *Doju* Jeungsan Cho(1925-1941&1945-1958) and *Dojeon* Wudang Park(1958-1996).<sup>32)</sup> Geo-Lyong Lee compared the full name of Jeungsan with the personal god (Brahman) and the impersonal god (Īsvara) of India and presumed that the supreme God of *Daesoonjinrihoe* would possess both characters of personality and impersonality.<sup>33)</sup> The *Daesoon* concept of the supreme God is related to the multiple theologies of pantheism, polytheism, and monotheism.<sup>34)</sup>

---

31)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op. cit., pp.4-5.; Yong-Cheol Park, "Review on the Korean and Chinese Belief of Gu-cheon Eung-won Nweh-seong Bo-hwa Cheon-jon Kang-seong Sangj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pp.285-322.; Wau Chae Ching, "Belief of Daesoonjinrihoe's Gu-cheon Sangje and Bo-hwa Cheon-jon of Taoism",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pp.157-177.; Seon-Keun Cha,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Outlook on Highest Ruling Entity in Daesoon jinrihoe(I)-Focusing on Descriptions for Highest Ruling Entity and It's Meaning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pp.99-156.

32) *Doju* Jeungsan Cho(1925-1941&1945-1958) theologically composed *Daesoon* thoughts including *Daesoon* tenets (four major principles of the new religion), while his successor *Dojeon* Wudang Park(1958-1996) organizationally performed the social visions for the world of *Hucheon sunkyoung* (the earthly paradise of *Daesoonjinri*). Dae-Jin Jeong, "Daesoonjinrihoe and Daesoon's Tenet", *The Academic Journal of Daesoonjinri* 1 (2006), pp.13-36.; Kyung-Won Lee, "Study on the Religious Activities of Doju Cho, Jeong San, One of the Funders of Daesoonjinrihoe", *The Academic Journal of Daesoonjinri* 1 (2006), pp.250-290.; Sang-Kyu Park, "The Organ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of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74:3 (2014), pp.251-291.

33) Geo-Lyong Lee, op. cit., pp.196-200.

34) Pantheism is the belief that there are many gods in nature and the universe. Polytheism is the action of worshiping more than one god. Seon-Keun Cha, op. cit., pp.101-103.; Geo-Lyong Lee (2010), pp.383-394.; Yong-Bok Yoon, "The Perception of Gods in Daesoonjinriho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pp.1-24.

### III. Daesoonjinrihoe and Its Theology

How can one interpret *Daesoonjinrihoe*? What is its theology or beliefs? How is *Daesoonjinrihoe* unique in comparison with other new religions? The *Daesoon* Truth used to be understood as an ethnic (*han minjok*) religion in the sense that Koreans are considered to be “a divinely chosen race, possessing a long and glorious history and a brilliant future.”<sup>35)</sup> They are depicted as the superior nation of the nations.<sup>36)</sup> In this way, *Daesoonjinrihoe* was the defender of the national spirituality against the socio-political spirit of foreign encroachments, whether Japan, China, Russia, or the other Western powers.<sup>37)</sup> The ethnic perspective can be described in the view that *Guchun Sangje*, the Lord of the Ninth Heaven came down into the vicinity of *Geumsan-sa* temple in the province of Jeolla Buk-do, Korea, and that Korean people became the central figures for the religio-political cultivation.<sup>38)</sup> Some illustrations are based on such a Korean view. For example, for the Post-World (*Hucheon*), Che-U Ch’oe was chosen to be the new leader for Daoism and the nation of Japan. Jin-muck Daesa was the new leader of Buddhism

---

35) Boudewijn Walraven, “The Parliament of Histories: New Religions, Collective Historiography, and the Nation”, *Korean Studies* 25:2 (2002), p.159.; Eui-Dong Hwang, “Confucius Understanding on Daesoon Idea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 (2009), pp.125-127.; Kil-Myung Ro, Hong-Chul Kim, Yee-Heum Yoon, Seon-Myeong Hwang, *Korean Native Religious Movements* (Seoul: Council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3), pp.132-144.

36) Korea is recognized as the supervising nation of the world for human beings. Seon-Keun Cha, “‘The Great Open’ and the Earthly Paradise of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9 (2013), pp.222-223.; Gyung-Won Lee (2011), pp.51-52.

37) Boudewijn Walraven, op. cit., pp.159-160.

38) Hyeong-Ki Kim, op. cit., pp.180-191.



instead of Buddha.<sup>39)</sup> Bong-Jun Jeon was for the nation of Korea. Il-Bu Kim, the author of *Jung-luk* was for China.<sup>40)</sup>

The *Daesoon* new religion is also seen as a messianic religion.<sup>41)</sup> The messianic perspective of Christianity is adopted to provide the hope of a savior's coming for his suffering people. According to Lanternari, messianism "is an answer to a real need for renewal and catharsis, resulting from a state of oppression, anxiety, tension, and conflict at a collective and social level."<sup>42)</sup> The millennium notion of Christian eschatology is also applied to *Daesoonjinri*<sup>43)</sup>, but most likely the new religion is interpreted as a syncretic religion. Like other new Korean religions *Daesoonjinhoe* includes the basic terms or teachings of the traditional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Frequently, the sources of Christianity and Korean shamanism are also mentioned among readers, for there are some relevant narratives in their canonical texts.<sup>44)</sup> Chong-Suh Kim describes

---

39) Joon-Yon Hwang, op. cit., pp.82-85.;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Life of Jeungsan and Thought* (Seoul: Press of Daesoonjinhoe, 1994), pp.84-86.

40) Matteo Ricci was chosen as the new religious leader of Christianity (*Daesoon Jeongyeong* 5:12). Such as *Daesoon Jeongyeong* (1<sup>st</sup> edition) 6:52, *Daesoon Jeongyeong* (3<sup>rd</sup> edition) 6:130, *Daesoon Jeongyeong* 4:60.; Yeon-Jung Han, "A Study of Chinese Literati Who Contacted Matteo Ricci", A Master Thesis Submitted to Ewha Womans University (2000), pp.26-95(pp.117-118).; Sung-Hae Kim, Eun-Yong Yang, Ok-Soong Cha, Kil-Myung Ro, *New Korean Religions and Christianity* (2013), pp.33-37.; Eui-Dong Hwang, op. cit., p.195.; Gyeong-Won Lee (2013), pp.67-68.

41) Han G. Kim, "Religious Protest and Revitalization Movement among Minorities", *Korea Journal* 20 (1980), pp.17-25.; Joong-Hyun Choe, *Studies in Korean Messianic Movements* (Seoul: Thinking Citizens, 2009), pp.8-16.; Jong-Ryeol Park, *Dream of Cha Cheon Ja* (Goyang: Jangmunsan, 1996), pp.53-89.; Moon-Suck Park op. cit., pp.5-20.

42) Vittorio Lanternari, "Messianism: Its Historical Origin and Morphology", *Journal of the History of Religion* 2:1 (1962), p.52.

43) Don-Ku Kang, *The Theory of Religion and Korean Religions* (Seoul: Parkmunsa, 2011), pp.624-630.; Flaherty, op. cit., p.29.

44) *Jeungsan Chunsa Gongsagi* (1926), *Daesoon Jeongyeong* (1929), *Sundo Jinyeong* (1965), and *Jeongyeong* (1974). Nam-Sik Ko, "A Study on Allomorph of KongSa

the religious phenomenon as that “Koreans are indeed religious but, more significantly, various religions have coexisted in an uneasy tension.”<sup>45)</sup> The syncretic phenomenon is also revealed in Asian new religions, even if there is no representation of the supreme God among them. The *Subud* movement of modern Indonesia parallels the Javanese mystical traditions, Sufi mystical experiences, and charismatic Christian experiences.<sup>46)</sup> The primary teachings of Filipino Rizalist cults are based on the pre-Spanish Malay, Filipino, and Catholic elements combined.<sup>47)</sup>

If *Daesoonjinrihoe* includes elements of those traditional religions, is *Daesoonjinrihoe* fully dependent on them? The doctrine of *Daesoonjinrihoe* partly applies such diverse creeds, but is not imitative. Rather, the *Daesoon* can be perceived as a “fulfillment concept” where the beliefs of the old Eastern and Western religions are accepted to promote the ultimate ideology of *Daesoon* Truth. *Daesoon* is receptive of Buddhism, Confucianism, Daoism, Catholicism, and shamanism. Yet, the new movement alternatively teaches the new principles in order to fulfill the humanistic ideology of *Daesoon* where the status of human beings is sublimated like “divine sages.”<sup>48)</sup> The new religion

---

in JeungSan Scriptur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2011), pp.162-197; Flaherty, op. cit., pp.26-44.; About Matteo Ricci of Daesoon Thought, see Won Ju Park, *The Theological Thoughts of Matteo Ricci in the Cheon-ju-sil-eul* (Seoul: Kukmin University Press, 1997), pp.26-34.; Jae-Ho Lee, “The Thought of Matteo Ricci and the Change of the West”, in *The Way of Sangsaeng* (Yeoju: Daesoonjinrihoe Press, 2004), pp.51-61.

45) Chong-Suh Kim, “Contemporary Religious Conflicts and Religious Edu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9:1 (2007), p.32.; Don-Ku Kang further presumed that the syncretic character is the common figure of Korean religions. Don-Ku Kang (2011), pp.558-561.

46) Stephen C. Ulrich, “Evaluating the Charismatic Group Subud: Javanese Mysticism in the West”,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3 (2005), pp.161-172.

47) Ramon Guillermo, “Moral Forces, Philosophy of History, and War in Jesé Rizal”, *Philippine Studies* 60:1 (2012), pp.5-12.

offers a comprehensive belief, not only to overcome problems of the Pre-World (*Suncheon*), but also to prepare the Post-World (*Hucheon*). The followers are informed to be able to experience the ideological world of the Post-World (*Hucheon*) on earth. There is no repentance of sin as in Christianity, but the four major tenets of the community unveil the possibility of men reaching into the spiritual realm of being delivered from worldly existence<sup>49</sup>): 1) Creative conjunction of the virtues of Ying and Yang (*Yinyanghapdeok*); 2) Harmonious union of divine beings and human beings (*Sininjohwa*); 3) Resolution of grievances to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Haewonsangsaeng*); 4) Realization of the Do (Truth) in the world (*Dotongjingyeong*).

The fundamental principle (so called, *Yinyanghapdeok*) encourages followers to conjunct the virtues of Yin and Yang. The terms of Yin and Yang are not creative, but already known in the teaching of Confucianism where Yang (light) is the opposite side of Yin (darkness). The old Chinese religion, with the *Tae-geuk* teaching of *Sungrihak*, delivers the perspective that all creatures co-exist with opposite characters. In this regard, Jeungsan knew and read the Confucian texts (*sa-hak, tong-gam, dae-hak, so-hak, jung-long, non-eo, mang-ja, si-jun, su-jun, and ju-luk*).<sup>50</sup> The Daesoon

---

48) For the definition of spiritual beings (*Sin-Myoung, Young, Kye-sin, Hun-back*) in Korean context. See Gyung-Won Lee (2011), pp.99-103.; Kwang-Iel Kim, op. cit., pp.31-36.

49)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2009), pp.14-15.; Daesoon jinrihoe, "Religions of Kang Il-Soon",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pp.251-261.

50) Jeungsan Kang mentions the list of books in his book, *Hyeon-Mu-Kyoung*. Yet, Jeungsan did not just accept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 but rationally re-interpreted its key points for the socio-political needs of Korea. Joon-Yon Hwang, op. cit., pp.78-79.; Kyoo-Hoon Jung, op. cit., pp.48-53.; Yong-Bok Yoon, "Ancestral Rites and Main Features of Daesoonjinrihoe", *Korean*

teaching of *Yinyanghapdeok*, however, introduces an advanced perspective of “harmony and power” that human beings are Yang (light) and that spirits (shins) are Yin (darkness). When human beings (Yang) and spirits (Yin) cooperate together, all the changes are possible for the chaotic Universe.<sup>51)</sup> According to Kyoung-Won Lee and Soon-Ja Kim, the social equality of women is also recovered by this teaching, for women are seen as Yin and men are Yang.<sup>52)</sup>

We are going to make Gungon (heaven and earth) by working off women’s grudge through *Jungeumjungyang*, who were no more than sheer sexual objects of flirting or servants. The remaking of the law of courtesy is to prevent men from wayward exercising of their rights without listening to women, from now on (*Daesoon Jeongyeong, Yeashi* 6).

The founder (*Sangje*) encountered the teaching of Confucius, but encouraged his followers that men and women should have an interactive relationship for each of them has unique role and value. When they are treated equally, they reach the ultimate stage of harmony: “according to their efforts, women will also be recognized in the Post-World (*Hucheon*). So the old (Confucian: “*nam-jon-yeo-bi*”) tradition and concept of male supremacy will be disappeared.”<sup>53)</sup>

---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69 (2012), pp.152-155.

51) Eui-Dong Hwang, op. cit., pp.133-135.; Seung-Nam Kim, “A Perspective of DaesoonJinrihoe on Gender and Religious Education, and Its Practical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2 (2013), pp.28-40.

52) One can see the theory of Yin and Yang in the book called the *Jeong-Yeok* written by Il-Bu Kim. There are many places in the canon where Jeungsan Kang mentioned his awareness of the *Jeong-Yeok*: *Jeongyeong, Hangrok* 2:2, *Gongsa* 1:7, and *Yeashi* 3. See Geo-Lyong Lee, op. cit., p.218.; Joon-Yon Hwang, op. cit., pp.80-81.; Soon-Ja Kim, op. cit., pp.206-208.

53) See *Jeongyeong, Kyobup* 1:68, self-translated. It also covers the social equality of different classes. *Kyobup* 1:10.; Gyung-Won Lee (2011), pp.234-237.; Gyung-Won Lee (2012), pp.119-127.

The *Daesoonjinrihoe* movement teaches about the principle of *Sininjohwa* which spiritually pursues the harmonious reunion of human beings with divine beings.<sup>54)</sup> They believe that as human beings through meditation solve the former heart of anger and envy over other people men and women themselves are able to recover their pre-depravity condition like divine beings. This key teaching implies the fact that human beings can be transformed into a divine stature. It does not require any sacrificial action of a savior, but human beings can achieve it by their personal efforts since their supreme God (*Sangje*) has set up the new system of the Universe during his earthly *Gongsa* (public works) (1901–1909).<sup>55)</sup> The theory of *Sininjohwa* has been compared with the *Chunin-hapil* concept of Confucianism where the human nature should resemble the heavenly nature in life. Confucianism teaches respect for human beings, for they are the agents of the will of heaven (surrogateship).<sup>56)</sup> Further, the terms (*sine-sun, sun-yeo, sun, do-in, do-tong, do-ga, do-jang, seo-do, and do-sul*), along with various spells and rituals<sup>57)</sup>, are presumed to be rooted in Chinese Taoism.<sup>58)</sup>

---

54) For the category of divine beings, see Gyung-Won Lee (2013), pp.295–297.; Gyung-Won Lee (2011), pp.99–108.

55) See the section of *Cheonjigongsa* later.

56) Eui-Dong Hwang, op. cit., pp.138–142.

57) *Daesoon Jeongyeong* 2:127 and 4:29 (about *chil-sung-kyong*).; *Jeongyeong, Gongsa* 3:28 (*Tae-eul-ju*). There are more spells such as *Si-cheon-ju, Dae-tong-ju, Shine-jang-ju, Shine-sung-ju, Oh-ju, Gang-Saeng-ju, Bong-chuk-ju, Jin-beop-ju, Jul-hu-ju, Won-jang-ju, 28 Su-ju, and 24 jeol-ju*. Joon-Yon Hwang, op. cit., pp.85–88.; Tak Kim, *Studies in Jeungsan Movement* (Seoul: Milaehawang Culture, 1992), pp.58–96. About their main Chi-sung ritual, see Gyung-Won Lee, “The Religious Figures of the Chi-sung Ritual of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0 (2009), pp.133–162.; Don-Ku Kang (2013), pp.145–175.; Byong-Kil Jang, op. cit., pp.172–180.

58) Kyoo-Hoon Jung, op. cit., pp.57–59.; Maria Park, “A Comparative Study on Belief Systems of Daesoonjinrihoe and Taoism”,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4 (2011), pp.129–155.

Tack Kim argues that the Jeungsan movement is one of the new religious groups that mostly applies the terms and rituals of traditional Daoism.<sup>59)</sup> On the contrary, the meaning of *Sininjohwa* contains the creative concept that divine beings and human beings were originally very interactive in the operation of the Universe. The role of divine beings (*shine-sun*) used to affect the acts of human beings and reversely the acts of human beings affected the world of divine beings. In other words, the history of human beings was based on the movement of divine beings, while the function of divine beings was according to the acts of human beings:<sup>60)</sup> “the fights of people cause the fights of divine beings in heaven, but when the divine fights end it determines the human fights.”<sup>61)</sup>

The principle of *Haewonsangsaeng* is the third teaching of the new Korean religion which is about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to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The practitioners are encouraged to solve any previous grievances and not to cause any harm to other people in order to perform the mutual beneficence in life. In detail, the word, *Haewon* means that there were grievances in the Pre-world<sup>62)</sup> as everyone had kept bad emotions (*Won*) toward

59) Tak Kim, “The Taoistic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Jeungsan Gyo”, *Journal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24 (2006), pp.251-283.; Seon-Keun Cha, “A Comparative Study on Haewongyeol (Resolution of Deep Grievances) in Tai-Ping-Jing and Haewonsangsaeng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in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65 (2011), pp.92-93.

60) Gyung-Won Lee even reminds ones tha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human beings has been magnified more than the divine beings in the concept of *Sininjohwa*. See also the section of *Injon* thought later, *Daesoon Jeongyeong* (6<sup>th</sup> edition) 3:103, 5:10, and 6:126.; Gyung-Won Lee (2011), pp.124-128.; Gyung-Won Lee, *Doctrines of Daesoonjinrihoe* (Seoul: Munsachul Press, 2012), pp.130-137.

61) *Jeongyeong, Kyobup* 2:23.

62) *Jeongyeong, Gongsu* 1:3, “The supreme God (*Sangje*) said that in the Prior World (*Suncheon*) both human and other beings were dictated by the

each other<sup>63</sup>), but one has to forgive others' mistakes (*Haе*) in term of untying the fetters of grievances. Further, *Sangsaeng* teaches that one respects the other sincerely.<sup>64</sup>)

The supreme God said that from the ancient time I have tried to resolve all the grievances created by the human hated and greed by removing or releasing them from all human beings, thus creating eternal peace on earth by undertaking (what he called) the Reordering the Universe. The history of ours is identical with that of human grievances ... (*Jeongyeong, Gongsа* 1:3)

*Daesoon Gichim*, an instructional book of the movement, similarly indicates that no one should 'make an enemy and this will make another become well.'<sup>65</sup>) Eui-Dong Hwang presumes that it is between human being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of human beings, divine beings, and nature.<sup>66</sup>) The view of *Haewonsangsaeng* is supposed to be related to the *In-pi-cheon-ha* (Confucian ideology) that if one wants to achieve a goal one should also cooperate with the

---

principle of mutual conflict or contradiction (*Sanggeuk*)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accumulation of grievances (*Won*). As a result, both *Sanggeuk* and *Won* had been rampant in the three worlds of heaven, earth, and man. Under those circumstances the Universal Truth (*Changdao* or *Sangdo* in Korean) disappeared and a series of tragic disasters, both man-made and natural, appeared, as if they would overwhelm the worlds of man and god. To change the entire world he tried to resolve all the problems or grievances of all beings in the universe."

63) *Won* means grudges and bitterness. See *Jeongyeong, Gongsа* 1:3, 32, 2:3-4, 3:5, 18, and *Kyobup* 1:10. There are many cases such as between divine beings, between male and female, between regions, and between nations. Gyung-Won Lee (2012), pp.132-138.; Gyung-Won Lee (2013), pp.72-73.; Eui-Dong Hwang, op. cit., p.143.; Seon-Keun Cha (2011), pp.89-90.

64) For more details of *Sangsaeng*, see Gyung-Won Lee (2011), pp.80-85.; Seon-Keun Cha (2011), pp.100-101.

65) Daesoonjinrihoe, *Daesoon Gichim* (Yeoju: Daesoonjinrihoe Press, 1984), p.27.

66) Eui-Dong Hwang (2009), pp.146-147.

other one to achieve the friend's goal.<sup>67)</sup> The *Daesoon* teaching of *Haewonsangsaeng* is also considered as having the familiar sacrificial concept with shamanic beliefs (*Sick-kim Gut* and *Jinogui Gut*) and Buddhist sacrificial rituals (*Cheondo* ritual and *Su-raek* ritual), and Confucian sacrificial rituals (*La-Ja*, *Lumkuck-Maeja*).<sup>68)</sup> The three rules of behavior for the new religion of Agama Hindu Dharma (Balinese Hinduism) are also analogical as encouraging members to “think good thoughts, speak honestly, and do good deeds.”<sup>69)</sup> Kil-Myung Ro, therefore, generalizes the *Haewon* teaching as a common phenomenon among most of new religions.<sup>70)</sup> Such teaching of the movement seems merely ideological, but the *Daesoonjinrihoe* illustrates it as a practical truth, for the present experience of the condition is respected in members' lives.<sup>71)</sup> Unlike the Asian counterpart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Daoism, Gyung-Won Lee argues that the will of man is creatively seen in the *Daesoon* movement; men in his ability can reverse any situation and fine his own identity by his knowledge.<sup>72)</sup> The reader supports

---

67) Ibid.

68) *Sick-kim Gut* (exorcism: Shamanistic performance) is a shaman ritual for cleaning a dead person's soul. *Jinogui Gut* is to solve the grievances of dead people in wishing to send them to good heavenly place. *Cheondo* ritual is a Buddhist ritual sending dead spirits to paradise. *Su-raek* ritual is a Buddhist ritual to encourage the souls of water and land through the Buddhist message and food. *La-Ja* is a Confucian ritual to respect the female spirit who died badly. *Lumkuck-Maeja* is the events burying the dead body or not rotten body in the air without care. Seon-Keun Cha (2011), pp.89-119.

69) June McDaniel, “Agama Hindu Dharma Indonesia as a New Religious Movement: Humduism Recreated in the Image of Islam”,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14:1 (2010), pp.93-103.

70) Kil-Myung Ro, *Studies in New Korean Religions* (Seoul: Kyoungsaewon, 2001), pp.56-60.

71) Gyung-Won Lee (2012), pp.22-23.; Gyung-Won Lee (2013), pp.84-93.

72) Gyung-Won Lee, “A New Paradigm of the Daesoon Thought with Special References to Characteristics of the Ideas of Haewon-Sangsaeng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view that humans have the practical obligation, because when men and women follow the teaching they do not lose their own independence.<sup>73)</sup> Furthermore, the *Daesoon* group teaches that the principle of *Haewonsangsaeng* is the main application for the Post-World (*Hucheon*). As they are interrelated, the *Haewon* fulfils the ultimate goal by *Sangsaeng* and *Sangsaeng* can contain its eternal creativity by the process of the *Haewon*.<sup>74)</sup> So man in *Daesoon* is able to keep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which brings peace and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al world.<sup>75)</sup>

The fourth principle of the *Daesoon* movement introduces another way to the ultimate status of spirituality through realizing the Do (Truth) in the world, so called *Dotongjingyeong*.<sup>76)</sup> The teaching is the conclusive perspective of the other three teachings. In particular, *Dotong* is the ideological stage of human beings. It is not about being saved by faith, but through an individual meditation one reaches to the completion of oneself in the teachings of the founder, *Gucheon Sangje*. For achieving such an ultimate stage, the new religion suggests three progressive goals: “to guard against self-deception (transformation of the human spirit)”, “to realize earthly immortality (renewal of human beings)”, and “to create an earthly paradise (transformation of the world).”<sup>77)</sup> For *Daesoonjinri*

---

*New Religions in Korea: New Religious Movements in Korea as a Paradigm Shift* (Claremont, CA: Claremont University, 2010), pp.88-90.

73) Gyung-Won Lee (2011), pp.399-403; Seon-Keun Cha (2011), pp.107-111.

74) Gyung-Won Lee (2012), pp.152-153.

75) Gyung-Won Lee (2010), pp.83-93.

76) or called, *Dotongsunyeong*. Dae-Jin Jung, “Understanding of Dotongjingyeong”, *The Journal of Daesoon Thoughts* 5 (1998), p.8; Hang-Nyong Lee, “The Contemporary Meaning of *Dotongsunyeong* Thought”, *The Journal of Daesoon Thoughts* 5 (1998), pp.31-33.; Daejin Media Edition Department, *Dotong* (Seoul: Daejin Media, 2008), pp.222-243.

77) Gyung-Won Lee (2011), pp.200-202.; Gyung-Won Lee (2013), pp.86-95.

followers, the condition of *Dotongjingyeong* is achievable on earth even though it is dependent on each person's training or meditation (*Jeongyeong, Kyowun* 1:34).<sup>78)</sup>

Geo-Lyong Lee compares *Dotongjingyeong* with the Indian theory of the Universe. The Post-World (*Hucheon*) of *Daesoon* that is the second half of circulation is the ideological world, while the *Krita* (beginning) of the Indian Universe is the most ideological part. The *Hucheon* means the time without internal structure of contradictions and evils, but the Indian Universe focuses on the external beauty and happiness.<sup>79)</sup> Eui-Dong Hwang also suggests that *Dotongjingyeong* is familiar with the Confucian teaching of the *Dadong* world where everything becomes public to the world of great truth. The world where there is no personal possession, but a fair world without socio-political difference.<sup>80)</sup> Nevertheless, the teaching of *Dotongjingyeong* is not clearly dependent on those thoughts of India and China, but specially interrelated with the denominational teaching of the so called, *Wonsi-banbon*, which encourages one to seek the genesis of oneness without divisions of ideology and philosophy<sup>81)</sup>: “(Sangje said), this era is the period of *Wonsi-banbon*. Because it is the time where the origin (of corruptions) is rightly fixed, ...”<sup>82)</sup> *Sangje* explains that the condition of *Dotongjingyeong* is returning to the *Wonsi* (pre-conflict) era. Ku-Hun Jung maintains that the ideological

---

78) *Jeongyeong, Gyowun* 1:34, “Also Sangje said, ‘Confucius allowed 72 people. Buddha allowed 500 people, but those who did not received *Dotong*, kept *Won* (grievances). I will light the hearts if anyone meditates well with their heart.” Gyung-Won Lee (2012), pp.177-178.

79) Geo-Lyong Lee (2009), pp.201-218.

80) Eui-Dong Hwang (2009), pp.147-167.

81) Gyung-Won Lee (2012), pp.147-162.

82) *Daesoon Jeongyeong* 6:124.

world does not just come as men await the change of nature and rule. The coming of the new world is fully up to human beings. The suffering condition of the world can be restored. The practices of perseverance and righteousness are the methods of *Wonsi-banbon*, coming back to the original condition.<sup>83)</sup> The *Sangje* of *Daesoon* regards the heart as the essence of the Universe.<sup>84)</sup>

#### IV. Prophecy, Cheonjigongsa, and Injon Era

While the four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movement introduce the way of a new worldview, the narrative of Jeungsan Kang's historical emergence is referred to the Maitreya tradition of a future Buddha in Buddhist eschatology. Maitreya of Buddhist literature (such as the Amitabha Sutra and the Lotus Sutra) is a bodhisattva who is expected to appear on earth, complete enlightenment, and teach the pure dharma.<sup>85)</sup> The canonical texts of the Buddhist schools (Theravāda, Mahāyana, and Vajrayāna) commonly reflect that the prophecy of Maitreya's arrival refers to a time when the dharma has been forgotten by people.<sup>86)</sup> The patriarchs of the Yiguan Dao

---

83) *Daesoon Jeongyeong* 3:50&6:143.; Kyoo-Hoon Jung, op. cit., pp.142-143.

84) *Daesoon Jeongyeong* 6:30.

85) Alan Sponberg and Helen Hardacre, *Maitreya, the Future Buddh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Beom-Cho Hong, "The Establishment of Utopia by the Korean Maitreya Tradition", *Proceeding of the Second Conference for Maitreya Tradition* (1999), pp.38-54.

86) Akira Miyaji, "Iconography of the Two Flanking Bodhisattvas in the Buddhist Triads from Gandhāra: Bodhisattvas Siddhārtha, Maitreya and Avalokiteśvara", *East and West* 58:4 (2008), pp.123-156.; Enrique Verástegui, "Maitreya", *Callaloo* 34:2 (2011), p.250, 468.

(I-Kuan Tao: the Unity Sect) that related to Taiping Dao, a Daoist sect in the late Han Dynasty(200 BCE–220 CE), are regarded as the incarnation of gods or Buddhas.<sup>87)</sup> Among them, the seventeenth patriarch (Lu Zhongyi) of Yiguan Dao is seen as the incarnation of Maitreya Buddha, while the following patriarch (Zhang Tianran) was the incarnation of Jigong Living Buddha.<sup>88)</sup> However, *Daesoon jinrihoe* covers the eschatological perspective of Buddhism in the context of a prophetic fulfilment that the founder Jeoungsan Kang has come as the Maitreya to save and restore the confusion and disorder of human beings, earth, and divine world.

The concept of *Mireukhasaengshinang* (faith in the Maitreya) is often seen as one of the common beliefs in ancient Korea.<sup>89)</sup> The Maitreya tradition was transmitted to the three kingdoms (*Goguryeo*, *Baekje*, and *Silla*) from India through China, and then settled down in the era of United *Silla* (676–935 AD).<sup>90)</sup> Buddhist monk Jinpyo-yulsa, after a revelation of Maitreya bodhisattva, created the Maitreya bodhisattva image at the *Keumsan* Temple in 762 AD.<sup>91)</sup> The Korean thoughts of Maitreya tradition contain

---

87) The new religion was estimated to have fifteen million followers in 1947 in China. The major movements fled to Taiwan after 1949. Lu Yunfeng and Graeme Lang, “Impact of the State on the Evolution of a Sect”, *Sociology of Religion* 67:3 (2006), pp.249–270.

88) Yet, the patriarchs of the Yiguan Dao (I-Kuan Tao) are not seen as savior or deliverer of humankind. Ibid.

89) Jae-Keun Youn, op. cit., pp.109–112

90) Seon-Myeong Hwang presumes that the thoughts of Maitreya tradition are related with messianic thought, for both of them commonly have an eschatological position against the situation of the present world. Beom-Cho Hong, op. cit., pp. 38–54.; Pankaj N. Mohan, “Koguryo’s Buddhist Relations with Silla in the Sixth Century”, *The Journal of Daesoon Thoughts* 19 (2005), pp.201–218.; Seon-Myeong Hwang, “The Maitreya Tradition as an Ethnic Culture”, *Proceeding of the Second Conference for Maitreya Tradition* (1999), pp.63–65.

91) Seon-Myeong Hwang, op. cit., pp.48–51.; Headquarter of Keumsan Temple, *Keumsan Temple, Maitreya Dolang the Moak Mountain* (Gimje: Keumsansa, 2012),

the perspective that Korea is destined to be the nation of the East responsible to solve the grievances of the previous world and create the united government of a new world (so called, *Hucheon sunkyoung* world).<sup>92)</sup> Such a prophetic revelation corresponds to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fulfillment that Jeungsan Kang did emerge on earth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Sangje (the supreme God) was in Gucheon (the Highest Heaven), the Holy Spirit, Buddha, and Bodhisattva asked that only Sangje could set the world properly. Then Sangje came down at the Cheonkyetap (tower of revelation from heaven) in Daebeopkook, one of the Western counties, and watched carefully Samkye (the heaven, the earth, and the human beings). In the meantime, when Sangje entered Mireukkeumsang at Keumsan Temple in Moak Mountains (Korea), he spent 30 years there ... (then) he himself ... decided to come down to earth in 1871 (being born as a human being). (*Jeongyeong, Yesshi* 1)

The canonical narrative of *Sangje* seems to reflect that the *Daesoon* thought is a new line of Korean Buddhism. The followers of the new religion do not deny the relevance of Buddhism with their supreme God, but the appearance of *Sangje* as the supreme God is rather to be seen as the fulfillment of the Buddhistic prophecy. The saying of *Sangje* confirmed the fulfillment perspective that he was the Maitreya, the future Buddha: “Sangje said, ‘I am the Maitreya. The *Mireukkeumsang* of the Keumsan Temple in the Moak Mountain received Chintamani on the hand, but I hold it

---

pp.10-51.; Nam-Eun Kim, Ong-Munk Lee, Jae-Gu So, *Keumsan Temple* (Seoul: Daewonsa, 2007), pp.8-16.

92) Seon-Myeong Hwang, op. cit., pp.52-54.

by my mouth.”<sup>93)</sup> This does not mean the *Daesoon* thought is dependent on Buddhist tradition, but the *Daesoon* Truth embraces the Buddhist tradition as they positively accept other teachings of the traditional religions (Confucianism, Daoism, Christianity, and shamanism). Ma-Ria Park interprets the theology of religious pluralism in a positive postmodernism that Jeung-san Kang recognized and accepted the advances of the traditional religions in a plural perspective to promote the new postmodern principles of the Universe for the coming future based on the realization of the past.<sup>94)</sup>

The fulfillment of Maitreya prophecy was developed by the work of the heavenly reconstruction, so called *Cheonjigongsa* (the main performance of Jeung-san Kang on earth).<sup>95)</sup> Christianity introduces that the Son of God, with both the divine and flesh figures, performed his public ministry under the will of the Father for three years before he ascended into the heavenly place. In contrast, the God of *Daesoonjinhoe* as a human being with the divine character independently fulfilled the request of all the divine sages, Buddhas, and bodhisattvas in order to restore the confused and conflicted conditions of earth, heaven and mankind.<sup>96)</sup> The meaning of sin is not a unique term in *Daesoonjinhoe*, but the words of ambition,

---

93) *Jeung-san Cheonsa Gongsagi*, p.146.; Boudewijn Walraven, op. cit., pp.160-163.; Kil-Myung Ro, Hong-Chul Kim, Yee-Heum Yoon, Seon-Myeong Hwang (2003), pp.135-137.

94) Maria Park, “Post Modern Society and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0 (2009), pp.32-33.

95) Byong Kil Jang, op. cit., pp.94-96.; Ki-Soo Kim, *The Parasitical Humanities of Ethnic Religions: From Su-Woon, hul-Arn, to Jeung-San* (Seoul: AHaw Press, 2003), pp.247-257.; Jae-Jin Jang, *Religious Pluralism of Modern East Asia and Its Meaning and Practical Ethics toward Utopia* (Busan: Sanjini, 2011), pp.220-227.; Gyung-Won Lee (2010), pp.409-414.

96) *Jeongyeong, Kyobup* 3:1; Ki-Soo Kim, op. cit., pp.282-297.

jealousy, and envy are the usual terminologies of the new religion. The narratives of *Jeongyeong* (the canon) demonstrate that the *Cheonji gongsa* was performed during a nine year period (1901–1909). The role of Jesus was to proclaim the closeness of the Kingdom of Heaven for human beings (Mt.4:17), but *Sangje* reset up the chaotic principle of the Universe for a new beginning of the Post-World (*Hucheon*):

Because all the human beings and lives are ruled by the principle of antagonism between each other in Suncheon, the grudges are piled up and filled in Samkye. Then, the heaven and the earth are deviated from the ordinary path of righteousness. Various disasters broke out, and the world became wretched. Therefore, I (Sangje) am going to pay off everything's eternal grudges by making the (new) rule of the heaven and the earth. By creating and harmonizing the work of Spirits and salvage all the human beings and lives will live in the world of *Hucheon Sunkyung* (a fairyland), created with the Do (religious truth in Daesoon) of Sangsaeng (living together). (*Jeongyeong, Gongsa* 1:3).

Byong-Kil Jang describes that the Prior-World (*Suncheon*) was divided into the East and West in “space” and separated into four religions of Confucianism, Buddhism, Daoism and Christianity. However, the Post-World (*Hucheon*) is based on the standard of “time” as the result of *Cheonjigongsa*. The three worlds of earth, heaven and mankind become interrelated, while various beliefs are unified by Jeungsan Kang of *Daesoonjinrihoe*.<sup>97)</sup> The previous thoughts of the three worlds were not just mixed, but harmonized through the public work of *Samkyegongsa* (another word for *Cheonjigongsa*), which was imposed by the three processes of Foundation, *Dongyang*,

---

97) *Hyeon-Mu-Kyoung*. Byong-Kil Jang, op. cit., pp.94–96.

and *Jaese*. The Foundation process was to get rid of the old things. The *Donglang* process was to set the new base. The *Jaese* process was to establish the new structure of the Post-World on the new base.<sup>98)</sup> The process of *Samkyegongsa* is also perceived in the way of the Universal disorder: “arranging the rule over the heaven and the earth”, “paying off everything’s eternal grudges by creating the work of Spirits”, and eventually “constructing the new world of *Hucheon* with the Do (Truth) of *Sangsaeng*.”<sup>99)</sup> Such a distinctive performance of the *Daesoon Sangje* is seen to be operated by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of “the harmonious government” for which *Sangje* is the head, the charge of all authorities and powers.<sup>100)</sup> Therefore, Tak Kim and Seon-Keun Cha argue that the thought of *Cheonjigongsa* primarily engaged with various thoughts of *Tonghak*, Confucianism, Buddhism, and Daoism to achieve the religious purpose of the *Daesoonjinri*’s founder, establishing the earthly ideological world, so called *Gisang Sunkyoung*.<sup>101)</sup> Such a view of the earthly ideological world is quite relevant to the teaching of *Injon* thought (harmonious union of divine beings and human beings). In this regard, the saying of *Sangje* declared that this is the presence of *Injon* era: “*Injon* is greater than *Cheonjon* and *Chijon*. Therefore, now is the era of *Injon*. Make every effort for spiritual enlightenment.”<sup>102)</sup>

---

98) *Daesoon Jeongyeong* 3:24, 4:40, 5:1-10, and 6:36. According to its purpose, Kil-Myung Ro expresses the three processes as *Wondo Gongsa*, *Shindo Gongsa*, and *Indo Gongsa*. Like this, there are many other expressions of readers for *Cheonjigongsa*. Byong-Kil Jang, op. cit., pp.97-115.; Jae-Jin Jung, op. cit., p.221.; Kil-Myung Ro, op. cit., pp.306-308.

99) *Jeongsan Cheonsa Gongsagi*, pp.10-11.; Jae-Keun Youn, op. cit., pp.113-115.;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1994), pp.75-79.

100) *Jeongyeong, Gongsa* 1:2. *Kyowon* 1:19. Kil-Myung Ro, op. cit., pp.113-122.

101) *Jeongyeong, Gongsa* 1:35, 3:5, 3:8, *Yeshi* 12, 17, 80-81, *Kyobup* 2:17, 2:56.; Tak Kim, *Jeongsa Kang*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06), pp.118-187.; Hyeong-Ki Kim, op. cit., pp.144-148.; Seon-Keun Cha (2013), pp.233-246.



The *Injon* era means the time where the true value and ultimate object of human beings are shared as the main subject in the worlds of heaven and earth. Human beings were not the subject in the Prior-world(*Hucheon*), but the identity of the mankind was elevated by the effort of the *Daesoon Sangje*.<sup>103)</sup> Human beings themselves did not decide to be superior, but the canonical texts indicate that *Sangje* through the *Shinemyoung gongsa* (the public work for the spiritual world) valued human beings more highly than divine spirits and ordered human beings to be in harmony with divine spirits.<sup>104)</sup> Although the *Injon* thought is often criticized as a common phenomenon among new Korean religions,<sup>105)</sup> Gyung-Won Lee maintains the meaning of *Injon* thought in a distinctive way that as humankind received all the authorities and power of the heaven and earth they are the central figure of the Universe.<sup>106)</sup>

In other words, heaven and earth are the material dimension of the Universe and the divine beings are the spiritual dimension of the Universe, but both the material and spiritual dimensions function in a human being.<sup>107)</sup> This way of the *Injon* thought is developed into the perspective that human beings are able to play the major role in the Universe, representing both the material and spiritual

---

102) *Jeongyeong, Kyobup* 2:56.; *Daesoon Jeongyeong* 6:119.

103) Seung-Nam Kim, op. cit., p.32, 41.

104) "Sangje said, 'you are right' and he performed the *shinemyoung gongsa* (the public work for the spiritual world) to defeat the Western powers (of Joseon)" (*Jeongyeong, Gongsa* 1:12). "Sangje said, it (the result of barley forming for this year) was decided at the *the shinemyoung gongsa*, so how can one predict the fruitful result even before the harvest" (*Jeongyeong, Khungi* 1:6). Kil-Myung Ro, Hong-Chul Kim, Yee-Heum Yoon, Seon-Myeong Hwang (2003), pp.140-144.

105) Moon-Suck Park, op. cit., pp.20-21.; Jae-Jin Jang, op. cit., pp.284-288.

106) Gyung-Won Lee (2009), p.153.; Gyung-Won Lee (2010), pp.395-403.

107) Gyung-Won Lee and Gyeong-Ik Choi, op. cit., p.153.

dimensions.<sup>108)</sup> The Chi-sung ritual of *Daesoonjinri* symbolically refers to such a meaning of *Injon* thought.<sup>109)</sup> The human being's supremacy over the nature of the visible and invisible Universe has never been introduced by any communities of the Abrahamic religions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The anthropocentrism of Eastern religions (Buddhism, Confucianism, and Daoism) seems closer to the *Injon* belief of *Daesoonjinrihoe* than to the *theocentrism* of the Western religions.<sup>110)</sup> Yet, the *Daesoon Injon* pursues more than the equality, but the supreme identity of human beings for which the divine beings cooperate in the post-*Cheonjigongsa* era.<sup>111)</sup> It shows the new Universal principle was fulfilled by the efforts of the *Daesoon* God.

## V. Conclusion

*Daesoonjinrihoe* is a new religion that originally emerged in the socio-politically confused Joseon Dynasty (Korea)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re were other new religion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nations of modern Asia. Some of them were the

---

108) Jae-Keun Youn, op. cit., pp.115-116.

109) Gyung-Won Lee (2009), p.153.

110) The Korean new religions (*Donghak*, *Chundogyo*, *Daejonggyo*, and *Wonbulgyo*) have developed a similar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divine beings on an equal level. Kil-Myung Ro, op. cit., pp.134-138.

111) Yet, this teaching does not introduce that all human beings will naturally be part of this case, but it indicates that Sangje has completed such a new universal principle for the ones who practice the *Daesoon* Truth. Il-Suk Mun, *Daesoonjinrihoe and Dojeon Hankyoung Park: Belief, Religious life, Instruction (Bless Others)* (Seoul: Tael Press, 1997), pp.146-151.

developed form of the old religions, while others individually reproduced Christian doctrines. Caodaism of Vietnam and the Rizalist cults of Philippines were the philosophical combination of the East and West religions. The three characters of Vietnamese poet and seer Nguyễn Bình Khiêm(1491–1585), leader of the Chinese nationalist revolution Dr Sun Yat Sen(1866–1925), and French author Victor Hugo(1802–1885) became the sacred saints of Caodaism(Đạo Cao Đài).<sup>112)</sup> Likewise, *Daesoonjinrihoe* does not outwardly avoid the previous thoughts of Asian and Western religions. They are flexible to include teachings of the traditional religions culturalized throughout Korean history. However, such a thought is not the weakness of the new movement. It is, rather, the advantage of the *Daesoon* movement, for the appearance of the *Gucheon Sangje* fulfilled the previous expectation, desire and hope of all religions. The performance of the *Daesoon* God incarnating himself into a human form was not only the unusual idea, but prominently comparable with other new religions where a founding figure just as a man generally receives a revelation from the heavenly being and then launches a new faith movement.

Contemporary readers used to approach the four major teachings (*Yinyanghapduk*, *Sineinchohaw*, *Haewonsangsaeng*, and *Dotongjinkyung*) in a syncretic sense, but eventually acknowledged the creative application of *Sangje*'s teachings. Jong-Sung Lee, like Seon-Keun Cha, presumed as that the canon (*Jeonkyung*) contains many ideas of Daoism like Buddhism and Confucianism, but they commonly affirmed that the *Daesoonjinri* doctrine does not just absorb all

---

112) Victor Oliver, *Caodai Spiritism: A Study of Religion in Vietnamese Society* (Leiden: Brill, 1976)

the views of the harmonious reconciliation of human beings, worldview of peace, and the ideal world.<sup>113)</sup> The “fulfilment concept” of *Daesoonjinri* demonstrates that the appearance and existence of *Gucheon Sangje* on earth accomplished the ultimate goals of all beliefs. The narrative where Jeungsan Kang is the presence of Maitreya, a future Buddha particularly illustrates the fulfillment of Buddhistic prophecy.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Cheonjigongsa* (the public work) during 1901-1909 reflects the fulfillment of Taoistic and Judaistic (messiah) prophecies in order to establish *an earthly paradise*.<sup>114)</sup> The denominational character of *Injon* thought is the fulfillment of the anti-Confucian feudalism for the elevation of human status.<sup>115)</sup> Such fulfilment concept of *Daesoonjinri* implies that the Universal mission of the founder Kang completely accomplished the request of the Holy Spirit, Buddha, and Bodhisattva of *Wonsi*.<sup>116)</sup>

---

113) *Jeongyeong, Kyowon* 1:40. *Kyobup* 3:24.; Jong-Sung Lee, “A Study on Context of Taoism in Daesoonjinri”,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 (2009), pp.309-315.; Seon-Keun Cha (2011), pp.89-119.

114) Daoism believed there will be a *Dotong-gunja* (a well versed man of Do) in the future to solve the earthly problems. Then God through an Angel promised to Abraham: “And in thy Seed shall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be blessed; because thou hast obeyed my voice”(Gen. 22:18). For Judah he predicted: “The sceptre shall not depart from Judah, nor a lawgiver from between his feet, until Shiloh come, and unto him shall the gathering of the people be”(Gen. 49:10).; Boudewijn Walraven, op. cit., pp.160-163.

115) *Gucheon Sangje* opened up the way human beings can be a supreme being of man (*Injon*) who is a *microcosm*. “When man becomes a microcosm which fully reflexes the universal mind, he/she superintends not only himself/herself but also the heaven and earth.” Jae-Jin Jang, op. cit., pp.284-288.; Jae-Keun Youn, op. cit., p.121.

116) *Jeongyeong, Kyowon* 1:9.

## 【 Bibliography】

*Jeongyeong* (1974)

*Hyeon-Mu-Kyoung*

*Jeoungsan Chunsa Gongsagi* (1926)

*Daesoon Jeongyeong* (1929)

Baker, Don. *Korean Spiritual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8.

Campion, Nicholas. *Astrology and Cosmology in the World's Relig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2.

Cha, Seon-Keun. "A Comparative Study on Haewongyeol (Resolution of Deep Grievances) in Tai-Ping-Jing and Haewonsangsaeng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in Daesoonjin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65, 2011.

\_\_\_\_\_. "'The Great Open' and the Earthly Paradise of Daesoonjinhoe",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9, 2013.

\_\_\_\_\_.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igious Thoughts of Suwon and Jeusa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69, 2012.

\_\_\_\_\_.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Outlook on Highest Ruling Entity in Daesoonjinhoe(I)-Focusing on Descriptions for Highest Ruling Entity and It's Meaning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Chio, Dong-Hee. "The Religio-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Dongkyoung-Daejun", *In Donghak and Re-recognition of Donghak Canon, Edited by the national Society of Daonghak*, Seoul: Sinsuwon, 2001.

- Daesoon Edition Department. *Dotong*, Seoul: Daesoon Media, 2008.
- Daesoo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Daesoonjinrihoe: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Yeosu: Daesoonjinrihoe Press, 2010.
- Daesoo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Life and Thought of Jeungsan*, Seoul: Daesoonjinrihoe Press, 1994.
- Daesoonjinrihoe. “Religions of Kang Il-Soon”,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 Flaherty, Robert Pearson. “JeungSanDo and the Great Opening of the Later Heaven: Millenarianism, Syncretism, and the Religion of Gang Il-sun”,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7, 2004.
- Han, Yeon-Jung. “A Study of Chinese Literati Who Contacted Matteo Ricci”, A Master Thesis Submitted to Ewha Womans University, 1999.
- Hartney, Christopher. “Spiritism and Charisma: Caodaism from its Infancy”, *Australian Religious Studies Review* 20:3.
- Headquarter of Keumsan Temple. *Keumsan Temple, Maitreya Dolang the Moak Mountain*, Gimje: Keumsan, 2012.
- Hong, Beom-Cho. “The Establishment of Utopia by the Korean Maitreya tradition”, *Proceeding of the Second conference for Maitreya Tradition*, 1999.
- Hong, Suh-Kyoung. “Tonghak in the Context of Korean Modernization”, *Th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14 (2011),
- Hui, Wang. “The Idea of Asia and Its Ambiguities”, *Journal of Asian Studies* 69, 2010.
- Hwang, Eui-Dong. “Confucius Understanding on Daesoon Idea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 2009.

- Hwang, Joon-Yon. "The Meaning of Daesoon Thoughts on the Basis of Asian Traditional Philosophy",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0, 2009.
- Hwang, Sun-Myoung. "The Maitreya Tradition as an Ethnic Culture", Proceeding of the Second Conference for Maitreya Tradition, 1999.
- Jammes, Jérémy. "Divination and Politics in Southern Vietnam: Roots of Caodaism", *Social Compass* 57:3, 2010.
- Jang, Byong-Kil. *DaesoonJinri Thought*, Seoul: Daesoonjinri Thought Institute, 1989.
- Jang, Jae-Jin. *Religious Pluralism of Modern East Asia and Its Meaning and Practical Ethics Toward Utopia*, Busan: Sanjini, 2011.
- Jeong, Dae-Jin. "Understanding of Dotongjinyeong", *The Journal of Daesoon Thoughts* 5, 1998.
- \_\_\_\_\_. "Daesoonjinrihoe and Daesoon's Tenet",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0, 2009.
- Jung, Kyoo-Hoon. *New Religions of Korea: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Donghak, Chungsan gyo, Daejonggyo, Won Buddhism*, Seoul: Sukwansa, 2001.
- Kang, Don-Ku. *The Theory of Religion and Korean Religions*, Seoul: Parkmunsa, 2011.
- \_\_\_\_\_. "Main Rituals of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73, 2013.
- Kim, Chong-Suh. "Contemporary Religious Conflicts and Religious Edu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9, 2007.
- Kim, Han G. "Religious Protest and Revitalization Movement among Minorities", *Korea Journal* 20, 1980.

- Kim, Hyeong-Ki. *A Study on the Hoocheon Gaebyeok Ideology*, Seoul: Hanaul Academy, 2004.
- Kim, Ji-Su. *The Parasitical Humanities of Ethnic Religions: From Su-Woon, hul-Arn, to Jeungsan*, Seoul: A-Haw Press, 2003.
- Kim, Kwang-Iel. “New Religions in Korea: The Socio-Cultural Consid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1:1, 1972.
- Kim, Kyuun-Jin. “The Religious-Sociological Function of Eschatology”, *People and Culture* 8, 1999.
- Kim, Nam-Eun. Ong-munk Lee, Jae-Gu So. *Keumsan Temple*, Seoul: Daewonsa, 2007.
- Kim, Seung-Nam. “A Perspective of DaesoonJinrihoe on Gender and Religious Education, and Its Practical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2, 2013.
- Kim, Soon-Ja. “Women’s Social Educational Function in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 1997.
- Kim, Sung-Hae. Yang, Eun-Yong. Cha, Ok-Soong. Ro, Kil-Myoung. *New Korean Religions and Christianity*, 2013.
- Kim, Tak. *Studies in Jeungsan Movement*, Seoul: Milaehawang Culture, 1992.
- \_\_\_\_\_. “The Taoistic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Jeungsan Gyo”, *Journal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24, 2006.
- \_\_\_\_\_. *Jeungsa Kang*,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06.
- Ko, Nam-Sik. “A Study on Allomoph of KongSa In JeungSan Scriptur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2011.
- Ku, Deuk-Hawn. “Daesoonjinrihoe of Korea and the Social Function”, *Korea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9, 1999.
- Lanternari, Vittorio. “Messianism: Its Historical Origin and Morphology”, *Journal of the History of Religion* 2:1, 1962.



- Lee, Geo-Lyong. "Daesoon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n Philosophy",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 2009.
- Lee, Gyung-Won. "Study on the Religious Activities of Doju Cho, Jeong San, One of the Funders of Daesoonjinrihoe", *The Academic Journal of Daesoonjinri* 1, 2006.
- \_\_\_\_\_. "The Present Status and Vision of the Research on Daesoon Thought",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 2009.
- \_\_\_\_\_. "The Religious Figures of the Chi-sung Ritual of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0, 2009.
- \_\_\_\_\_. "A New Paradigm of the Daesoon Thought with Special References to Characteristics of the Ideas of Hæwon-Sangsaeng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Religions in Korea: New Religious Movements in Korea as a Paradigm Shift*, Claremont, CA: Claremont University, 2010.
- \_\_\_\_\_. *Religious Thoughts of Korea: Jae-Issues of Ultimate Realism*, Seoul: Munsachul Press, 2010.
- \_\_\_\_\_. Gyung-Won Lee, *Korean New Religions and Daesoon Thought*. Seoul: Munsachul Press, 2011.
- \_\_\_\_\_. *Belief Theory of Daesoonjinrihoe*, Seoul: Munsachul Press, 2012.
- \_\_\_\_\_. *Doctrines of Daesoonjinrihoe*, Seoul: Munsachul Press, 2012.
- \_\_\_\_\_. *Daesoon Chonghak Wonlon*, Seoul: Munsachul Press, 2013.
- Lee, Gyung-Won and Gyeong-Ik Choi. "The Present State and Assignment in Social Welfare of Daesoonjinrihoe-Focused

- on Unit-Care System of the Senior Care Institution”,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5, 2011.
- Lee, Hang-Nyong. “The Contemporary Meaning of *Dotongsunyeong Thought*”,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5, 1998.
- Lee, Jong-Sung. “A Study on Context of Taoism in Daesoonjinri”,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 Aug., 2009.
- Lee, Lee-Haw. *Political Thoughts and Social Change in Late Joseon Dynasty*, Seoul: Hangilsa, 1994.
- Lee, Waen-gua. “Belief of Gu-cheon Eung-won Nweh-seong Bo-hwa Cheon-jon”,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 Levi McLaughlin. “Did Aum Change Everything? What Soka Gakkai Before, During, and After the Aum Shinrikyo Affair Tells Us About the Persistent ‘Otherness’ of New Religions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9:1, 2012.
- Lowe, Scott C. “Transcendental Meditation, Vedic Science and Science”,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 Emergent Religion* 14, 2011.
- \_\_\_\_\_. “Early Modern Central Asia in World History”, *History Compass* 10, 2012.
- McDaniel, June. “Agama Hindu Dharma Indonesia as a New Religious Movement: Humduism Recreated in the Image of Islam”,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14, 2010.
- Midgley, Clare. “Mary Carpenter and the Brahma Samaj of India: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Social Reform in the Age of Empire”, *Women’s History Review* 22:3, 2013.
- Miyaji, Akira. “Iconography of the Two Flanking Bodhisattvas in the Buddhist Triads from Gandhara: Bodhisattvas Siddhartha,

- Maitreya and Avalokiteśvara”, *East and West* 58:4, 2008.
- Mohan, Pankaj N. “Koguryo’s Buddhist Relations with Silla in the Sixth Century”,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19, 2005.
- Mun, Il-Suk. *Daesoonjinrihoe and Dojeon HanKyoung Park: Belief, Religious life, Instruction (Bless others)*, Seoul: Tae-il Press, 1997.
- Noh, Jong-Sun. “Analysis of Donghak Revolution”,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 Oliver, Victor. *Caodai Spiritism: A Study of Religion in Vietnamese Society*, Leiden: Brill, 1976.
- Park, Jong-lul. *Dream of Cha-chun Ja*, Goyang: Jangmunsan, 1996.
- Park, Kwang-Soo. “Introduction to the New Korean Native Religions”, in *Studies on Religions of Korea*, edited by Sang-Yil Kim,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6.
- Park, Maria. “A Comparative Study on Belief Systems of Daesoon jinrihoe and Taoism”,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4, 2011.
- \_\_\_\_\_. “Post Modern Society and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Korean Journal of New Religions* 20, 2009.
- Park, Moon-Suck. *Modern People’s Religions of Korea and Its Impacts on Modernization in Korea*,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1985.
- Park, Sang-Kyu. “The Organ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of Daesoonjinri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74:3, 2014.
- Park, Yong-Cheol. “Review on the Korean and Chinese Belief of Gu-cheon Eung-won Nweh-seong Bo-hwa Cheon-jon

- Kang-seong Sangj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 Pye, Michael. “Won Buddhism as a Korean New Religion”, *Numen* 49, 2002.
- Rai, Lala Lajpat. *The Arya Samaj: An Account of its Origin, Doctrines, and Activities*, New Delhi: Renaissance, 1991.
- Ramanlal, Soni. *Jalaram Bapa*, Ahmedabad: Enka Prakashan Kendra, 1984.
- Reed, David Arthur. “Autochthonous and Multicultural: Beliefs and Boundary-Keeping in the True Jesus Church”,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14:1, 2011.
- Ro, Kil-Myoung. *New Religions of Korea*, Daegu: Catholicsin munsa, 1990.
- \_\_\_\_\_. *Studies in New Korean Religions*, Seoul: Kyoung saewon, 2001.
- Ro, Kil-Myung. Kim, Hong-Chul. Yoon, Yee-Heum. Hwang, Seon-Myeong. *Korean Native Religious Movements*, Seoul: Council of Korean Native Religions, 2003.
- Roy, RD. “Disease, Colonialism, and the State: Malaria in Modern East Asian History”, *History of Medicine* 24:1, 2011.
- Salinas, Maximiliano. “Christianity, Colonialism, and Women in Latin America in the 16th, 17th, 18th Centuries”, *Social Compass* 39, 1992.
- Son, Byoung-guk. *The Way to the Hyeon-Mu-Kyoung*, Changwon: Junghaw-chausa, 2008.
- Sponberg, Alan and Hardacre, Helen. *Maitreya, the Future Buddh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An Introduction to Daesoonjinrihoe*, Yeosu: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2009.

The Society of Korean Religions. *Research Report of Korean New Religions*, 1996.

Tong, James W. *Revenge of the Forbidden City: the Suppression of the Falungong in China, 1999-2005*,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_\_\_\_\_. "Banding after the Ban: the Underground Falungong in China, 1999-2011",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1:78, 2012.

Tran, My-Van. "Beneath the Japanese Umbrella: Vietnam's Hoa Hao During and After the Pacific War", *Crossroads* 17:1, 2003.

Verástegui, Enrique. "Maitreya", *Callaloo* 34:2, 2011.

Walraven, Boudewijn. "The Parliament of Histories: New Religions, Collective Historiography, and the Nation", *Korean Studies* 25:2, 2002.

Wau, Chae Ching. "Belief of Daesoonjinrihoe's Gu-cheon Sangje and *Bo-hwa Cheon-jon of Taoism*",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Yoon, Yong-Bok. "Ancestral Rites and Main Features of Daesoon jinriho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69, 2012.

\_\_\_\_\_. "The Perception of gods in Daesoonjinriho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2013.

Youn, Jae-Keun. "Daessonjinrihoe and Injon(The Supreme Being of Man) Thought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 1996.

Yunfeng, Lu and Lang, Graeme. "Impact of the State on the Evolution of a Sect", *Sociology of Religion* 67, 2006.

Zhong, Yijiang. "Freedom, Religio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State in Japan, 1868-89”, *Asian Studies Review* 38, 2014.  
“The teachings of Hito-no-michi and Tokumitsu-kyo”,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268113/Hito-no-michi> and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598397/Tokumitsu-kyo>, accessed on 15/04/ 2014.

■국문요약■

## 한국 신종교 운동으로서 대순진리회

데이비드 김(David W. Kim)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아시아 국가들은 근대사에 들어 서양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로 인해 정치·사회적 과도기를 경험하였다. 지역종교들도 이러한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19-20세기에 나타난 신종교들이 그 좋은 사례들이다. 한국도 이러한 지구적인 현상에 포함되었다. 주변국들의 문화적 계몽주의와 조선왕조의 쇄국정책 사이의 정치적 혼란은 방향 감각 없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고, 정치·사회적 부패와 국가적 불안정은 중·하류층 시민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진리나 믿음을 찾게 동요하였다. 근대사에 근원을 둔 대순진리회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신종교일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기존 종교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종교운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다른 신종교적 현상들과 어떻게 구별될까? 이 논문은 창시자인 강증산의 역사적인 출현과 업적을 “성취관념”에서 분석해 볼 뿐 아니라 대순진리회가 기존의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 아니라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특유한 가르침들은 미륵사상, 천지공사, 인존사상과 함께 그들의 최고신인 구천상제가 후천 세계를 위해 성취한 완전한 미션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사상임을 논증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 신종교 운동, 대순진리회, 천지공사, 인존시대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12월 29일